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2年 2月

碩士學位 論文

傳燈新話와 金鰲新話의  
內容 比較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東洋學科 (中語中文學專攻)

鄭善美

傳燈新話와 金鰲新話의  
內容 比較研究

Comparative Analysis of Jeon-dung Mythology and  
Gum-o Mythology

2012年 2月 24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東洋學科 (中語中文學專攻)  
鄭善美

傳燈新話와 金鰲新話의  
內容 比較研究

指導教授 韓宗完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10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東洋學科 (中語中文學專攻)  
鄭善美

# 鄭善美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曹喜武 (인)

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李金恂 (인)

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韓宗完 (인)

2011年 11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 〈目 次〉

### ABSTRACT

제 1 장 序論 .....	1
제 1 절 研究 目的 .....	1
제 2 절 研究方法 .....	2
제 2 장 《剪燈新話》와 《金鰲新話》의 作品比較 및 繼承關係 .....	4
제 1 절 作家의 生涯 .....	4
2.1.1 瞿佑 .....	4
2.1.2 金時習 .....	7
제 2 절 作品의 構成 .....	10
2.2.1 《剪燈新話》 .....	10
2.2.2 《金鰲新話》 .....	12
제 3 절 作品의 性格 .....	14
2.3.1 《剪燈新話》 .....	14
2.3.2 《金鰲新話》 .....	16
제 4 절 東아시아에서의 受容樣相 .....	18
2.4.1 《剪燈新話》와 《傳奇萬綠》 .....	19
2.4.2 《傳奇萬綠》와 《金鰲新話》 .....	20

제 3 장 《剪燈新話》와 《金鰲新話》의 內容比較 .....	23
제 1 절 〈萬福寺樗蒲記〉와 〈滕穆醉遊聚景園記〉 比較 .....	23
제 2 절 〈李生窺牆傳〉과 〈翠翠傳〉 比較 .....	28
제 3 절 〈醉遊浮碧亭記〉와 〈鑑湖夜泛記〉 比較 .....	32
제 4 절 〈南炎浮洲志〉와 〈令狐生冥夢錄〉 比較 .....	36
제 5 절 〈龍宮赴宴錄〉과 〈水宮慶會錄〉 比較 ..	41
제 4 장 《剪燈新話》와 《金鰲新話》의 思想比較. ....	44
제 1 절 佛敎的思想 .....	44
제 2 절 儒敎的思想 .....	46
제 3 절 道敎的思想 .....	48
제 5 장 結論 .....	50
參考文獻 .....	52

# ABSTRACT

## Comparative Analysis of Jeon-dung Mythology and Gum-o Mythology

JEONG SUN MI

Adviser : Prof. HAN JONG WAN. Ph.D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t could be seen that the origin of Korean literature was started from tales. It was the general flow that novels of new genre by grafting creative idea and thought of authors based on tables of aspect of simple story was born. Among them, new change was occurred to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by reaching 'Geumoshinwha (金鰲新話, novels of Kim, Si Seub, the first Korean novels written by Chinese characters) in the early of Joseon Dynasty passing through 'biography (傳記)' in the early of Goryeo and the end of Silla and 'Gajeon (假傳: the form of biography by personifying objects)' of Goryeo. Because Geumoshinwha (金鰲新話) of Kim, Si Seub which recorded relatively faithfully in the aspect of contents and form by breaking away from the forms of narrative literatures in the past.

Geumoshinwha (金鰲新話) worked as a flare to inform change as fictional biography that broke away the novel of inherited form completely at that time. However, many scholars criticized that Geumoshinwha (金鰲新話) imitated Jeondeungshinwha (剪燈新話: short stories of Gu,



Wu) which was written by Gu, Wu of Ming Dynasty. There is few counterexamples to acknowledge Geumoshinwha (金鰲新話) as the first Chinese character novel of Korea. However, there are similar contents in the aspect of contents and composition, and cases that two works are similar are occurring in succession, so it is true that to put weight in some degree on the imitation of Jeondeungshinwha (剪燈新話).

Not a few scholars in existence suggest various research results whether Geumoshinwha (金鰲新話) imitated Jeondeungshinwha (剪燈新話) or created. Consequently, it could be possible that Kim, Si Seub who read Jeondeungshinwha (剪燈新話) could express the phases of the time at that time as writings by adding some materials or he could give vent to his anger for his present situations by borrowing Jeondeungshinwha (剪燈新話). Only, the writer came to have doubts about that Geumoshinwha (金鰲新話) is how much similar to Jeondeungshinwha (剪燈新話) and which influence was given to novel literatures of Korea by Geumoshinwha (金鰲新話). Therefore, it would be investigat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wo novels by making progress of comprehensive comparative study for Geumoshinwha (金鰲新話) and Jeondeungshinwha (剪燈新話), and solved the curiosities.

# 제 1 장 序論

## 제1절 研究目的

우리나라 문학의 始原은 설화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이야기 차원의 설화를 바탕으로 작가의 창조적 이념과 사상을 접목시켜 새로운 장르의 소설이 탄생하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었다. 그 중 신라 말 고려 초의 ‘傳記’와 고려의 ‘假傳’<sup>1)</sup>을 거쳐 조선 초의 《金鰲新話》에 이르러 국내 문학사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과거 서사문학의 형식을 탈피하고 내용과 형식면에서 비교적 충실히 기록한 김시습의 《金鰲新話》가 편찬되었기 때문이다.

《金鰲新話》는 당시 전해오던 형식의 소설을 완전히 탈피하고 전기소설로서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金鰲新話》를 두고 명나라 瞿佑가 지은 《剪燈新話》를 모방했다는 평을 내놓았다.<sup>2)</sup> 대부분 《金鰲新話》를 한국 최초의 한문소설로서 인정 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없다. 하지만 내용과 구성면에서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용법과 문장에서 두 작품이 비슷한 경우가 속출하므로 《剪燈新話》의 모방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는 것도 사실이다.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한 작가의 창조적 산물이며 크건 작건 다른 문학작품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김시습의 세계관에 입각한 창작임을 강조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우리의 시대를 이야기 했고 우리의 사회를 비판했으며 작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현실 사이의 모순들을 글로써 표현했다는 점에서 창작이라는 근거를 찾는다.

---

1) 식물이나 동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대기를 史傳의 형식에 맞추어 허구적인 立傳하는 문학양식. 고려 중기 이후 일부 문인들에 의해 창작되었는데, 가전체 또는 의인전기체라고도 불린다. 어떤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시켜서 그 家系, 生涯, 性品, 功過를 기록하는 전기의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실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가전이라 명명한 것이다.

2) 《金鰲新話》를 최초로 소개한 최남선은 「解題」에서 「그러나 현존하는 것만으로는 金鰲新話란 결코 탁월한 대작이랄 것 아니며 先儒의 說과 가치 명초 瞿佑의 《剪燈新話》를 倣한 一傳記이니, 그 체제와 묘사상에서뿐 아니라 立題命意와 取材設人에까지 《剪燈新話》는 藍本으로 하였 다 할 것이며」 장덕순(1986,11,8), 《韓國 文學史의 爭點》, 집문당, 335p

또한 《金鰲新話》 이전에 발생한 설화와 가전체 문학의 발자취를 살펴볼 때 전기체 소설이 나올만한 충분한 근거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적지 않은 연구자들은 《金鰲新話》가 《剪燈新話》를 모방했는지 창작했는지에 대해 다양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剪燈新話》를 읽은 김시습이 약간의 소재를 첨가해서 현재의 시대상을 글로서 표현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현 상황을 《剪燈新話》를 빌어서 울분을 토했을 수도 있다. 다만 필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과연 《金鰲新話》가 《剪燈新話》와 어느 정도 비슷하며 《金鰲新話》가 우리나라 소설 문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의문을 품게 되었다. 때문에 《剪燈新話》와 《金鰲新話》에 대해 종합적인 비교연구를 진행하여 두 소설이 가지고 있는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그 궁금증을 해소해 보기로 한다.

## 제2절 研究方法

본고는 비교문학의 관점으로 《剪燈新話》와 《金鰲新話》를 작가와 작품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한국 고전문학은 중국 문학의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문학과 중국문학의 작품분석을 통한 비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선 전기 김시습이 지은 한문 소설집인 《金鰲新話》와 명나라 瞿佑의 문언 전기소설집인 《剪燈新話》는 여러 방향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비교대상이 되고 있다. 김수성의 <金鰲新話와 剪燈新話의比較研究><sup>3)</sup>는 《金鰲新話》와 《剪燈新話》의 내용을 간략하게 비교분석 해놓았으며, 박성의의 <한국소설에 끼친 중국소설의 영향><sup>4)</sup>은 논문제목 그대로 전등신화가 금오신화에 끼친 영향을 서술해 놓았다.

이학주의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예술적 특성연구><sup>5)</sup>는 전기소설의 내용과 특

3) 김수성,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의 비교연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4)

4) 박성의, <한국소설에 끼친 중국소설의 영향>(고대50주년기념논문집,1955)

성을 연구 및 분석해 놓았다. 마지막으로 김춘해의 <剪燈新話 研究><sup>6)</sup>는 전등신화의 내용 및 작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으나 연구했던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 한계점이 있었다.

그래서 본 고에서는 두 작품의 계승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작가, 작품배경, 작품성격, 수용양상 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소설에 수록된 작품들의 내용에서 창작성과 문학성은 물론, 애정전기로서의 면모를 비교 분석하여 모방과 창작의 선을 경계로 하는 영향과 수용 관계의 증명을 시도해 보겠다. 두 소설의 내용비교에 대한 시도는 이미 기존 성과물에서도 상당수 드러나고 있지만 본 고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두 작품의 사상비교를 통해 《剪燈新話》의 영향력과 《金鰲新話》의 독창적인 계승부분을 증명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현재 《剪燈新話》와 《金鰲新話》는 여러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作者의 삶과 사상, 작품세계, 그리고 중국 전기인 《剪燈新話》와의 영향 수용관계 등을 밝혀내고 있다.

그 외에도 작품 자체 내용에 대한 연구와 소설사에서의 전기소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지고 있다. 다만, 作者, 작품, 사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때문에 작가의 生涯와 의식, 작품의 성격과 수용양상에 대한 다방면의 비교를 바탕으로, 작품 내용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시대적, 문화적 차이와 변화 발전양상은 물론 유교, 불교, 도교적 사상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인 비교연구는 두 소설의 계승관계와 발전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방법이자 의미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

5) 이학주,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예술적 특성연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4)

6) 김춘해, <전등신화 연구>(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제 2 장 《剪燈新話》와 《金鰲新話》의 比較 및 繼承關係

《金鰲新話》는 조선조 초기의 천재 문인 매월당 김시습이 지은 단편 소설 집이다. 한국 傳奇體小說의 효시로 <萬福寺樗蒲記>, <李生窺牆傳>, <醉遊浮碧亭記>, <龍宮赴宴錄>, <南炎浮洲志> 등 5편이 수록되어 있다.

《剪燈新話》는 중국 明代 홍무 연간에 구우가 엮은 괴기 소설집이다. 각 권마다 5편씩으로 나뉘고 부록 1권이 있다. 1권에 <水宮慶會錄>, <三山福地志>, <華亭逢故人記>, <金鳳釵記>, <聯芳樓記>, 2권에 <令狐生冥夢錄>, <天台訪隱錄>, <牧丹燈記>, <渭塘奇遇記>, 3권에 <富貴發跡司志>, <永州野廟記>, <申陽洞記>, <愛卿傳>, <翠翠傳>, 4권에 <龍堂靈會錄>, <太虛司法傳>, <修文舍人傳>, <鑑湖液泛記>, <鑑湖液泛記>의 20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金鰲新話》의 소설적인 특성은 첫째, 주인공들이 한결같이 才子佳人의 인물이라는 점, 둘째, 문장 표현이 한문 文言文으로 사물을 극히 미화시켜 표현한 점, 셋째, 일상적·현실적인 것과 거리가 먼 신비로운 내용을 그린 점 등인데, 이는 傳奇小說의 일반적인 성격이며 이런 점에서 중국소설 『《剪燈新話》』의 영향이 있었음을 보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두 작가의 생애를 먼저 분석해보고, 《金鰲新話》와 《剪燈新話》의 작품을 더 세밀하게 비교분석 해 볼 것이다.

### 제1절 作家의 生涯

#### 2.1.1 瞿佑

元末明初의 격동기를 살았던 문인 瞿佑(瞿佑.1341~1427)의 자는 宗吉, 호는 存齋이며, 浙江省 臨安縣 錢塘에서 태어났다. 瞿佑는 경치가 좋은 오산의 大隱堂에서 10여년을 살면서 아름다운 풍경과 서호를 찬미하는 시를 많이 지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시에 능통하여 이름을 떨치자 아버지의 친구인 張彦復이 어느 날 집으로 찾아와 시험하고자 닭을 제목으로 시나 사를 짓게 하였고 구우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宋處宗과 창가에서 마주보며 고담준론하였으니  
 다섯 가지 德의 명성 오색의 깃털에 깃들었네.  
 예부터 范式과 張邵의 情誼는 두터웠거늘  
 닭 잡는데 어찌 굳이 소 잡는 칼이 필요하리오.  
 (宋宗窓下對談高, 五德名聲五彩毛  
 自是范張情誼重, 割烹何必用牛刀<sup>7)</sup>)

이를 본 張彦復은 크게 칭찬하며 손으로 계수나무 꽃을 그리며 答詩를 지었다.

구군에게 아들이 있는데 일찍이 시에 능하고,  
 기절과 풍채의 뛰어난이 난초나 옥 같은 자태니라.  
 하늘위의 기린도 근본이 씨앗이 있거늘  
 정명때 높아짐이 차가운 가지에 넓게 걸리겠구나.  
 (瞿君有子早能詩, 風采英英蘭玉姿  
 天上驥麟原有種, 定名高折廣寒枝)<sup>8)</sup>

당시에 원대의 저명한 문인 楊維禎이 瞿佑의 숙부인 瞿士衡과 친분이 있었다. 하루는 양유정이 전계당으로 구사형을 찾아왔는데, 楊維禎<sup>9)</sup>이 지은 香

7) 瞿佑 著, 《剪燈新話》, 지만지(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8

8) 瞿佑 著, 《剪燈新話》, 지만지(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8

9) 중국원나라의 문인(1296~1370)으로 절강성 紹興사람이다. 字는 廉夫 號는 東維子,鐵笛道人이라고 하였다. 문장은 비범하고 탁월하여 “철애체(鐵崖體)”라고 칭했으며 그의 서체 역시 다른 사람

詭八詠을 보고 瞿佑가 즉석에서 답시를 지으니 문장이 빼어나기 그지없었다. 양유정이 감탄을 하면서 구사형에게 瞿佑는 “구씨집안의 천리마” 라고 칭찬하였다. 그 일로 瞿佑의 명성이 더욱 드높아졌다. 瞿佑는 비록 재능이 많았지만 운이 좋지 못해 운명이 奇薄하였다. 洪武년(1391)간에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仁和縣의 學訓導가 되었고, 나중에는 升周府의 長史가 되었으나 永樂년(1403~1425)간에는 詩禍를 입어 錦衣獄에 갇혀 있다가 安州로 10년간 유배되었다.

어린 시절의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瞿佑는 10여년을 처량한 변방생활로 보내면서 끝없는 비참함을 느꼈다. 永樂 12년인 1414년 정초에 그는 처량한 마음으로 望江南이라는 5수의 시를 지었다. 그 중 그의 심정이 잘 드러난 구절을 살펴보자.

여러 차례 피어오르는 봉화가 멀리 변방 요새를 밝히고,  
 쉽 없는 차가운 빨갛소리는 빈 병영에 울려 퍼지네.  
 무너진 부엌에 앉아 황미주 세 잔을 거둬 마시다가,  
 차가운 창가에 앉아 한 잔 술을 놓고 쓸쓸히 등잔불을 밝히네.

(數点夕烽明遠戍  
 幾聲寒角響空營  
 破三杯黃米酒  
 寒窓一盞獨油燈)<sup>10)</sup>

상심에 젖어서 홀로 앉아, 자신의 외롭고 고달픈 신세를 생각하며 등화나 가무, 연회와 같은 항주에서 즐겨왔던 추억이 되살아났을 것이다. 멀리 변방으로 쫓겨나 적막하고 단조로운 생활을 하던 시인에게는, 고향만큼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18년 동안 귀양살이 洪熙원년인

---

들의 일반적인 글씨와 다른 독특함이 있는데 깔끔하고 힘이 있는 것이 그의 문장의 풍격과 유사하다.  
 10) 瞿佑 著, 《剪燈新話》, 지만지(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8

1425년에 비로소 英國公 張寶의 주청으로 원직에 복귀하였고 한때 內閣辦事로 있었다. 그리하여 3년 동안 영국공가의 숙사 생활을 하고 지내면서 예우를 받다가 3년 동안 영국공가의 숙사 생활을 하고 지내면서 고향으로 돌아와 87세의 생을 마감한다.

### 2.1.2 金時習

조선 전기의 학자로서 본관은 江陵이며 자는 悅卿이고 호는 梅月堂, 東峰, 淸寒子, 碧山 등이다.<sup>11)</sup> 법호는 雪岑이며 시호는 淸簡으로 生六臣의 한사람이다. 그는 1435년에 태어나 1496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한문 소설로써는 《金鰲新話》가 있으며 문학관련 서적으로는 《宕遊關西錄後志》, 《山居百詠》, 《禿山院記》 등이 있고 宣敎에 관련해서는 《蓮經別讚》, 《華嚴釋題一乘法界圖註并序》, 《十玄談要解》, 《曹洞五位要解》, 《法華經別讚》, 《雜著什長文》 등이 있다. 서울 성균관 부근에 있던 사저에서 출생하였으며 신동, 신재로 이름이 높았다. 신라 알지왕의 후예인 元聖王의 동생 周元의 후손이다. 무반 계통으로 忠順衛를 지낸 金日省의 아들이다. 생후 8개월에 글을 알았고, 3세 때 보리를 맷돌에 가는 것을 보고 “비는 아니 오는데 천둥소리 어디서 나는가, 누른 구름 조각조각 사방으로 흩어지네” 라는 시를 읊었다 한다.

3세까지 외조부한테서 정속, 유학, 소학 등을 배워 글을 짓고, 5세 때에는 이웃에 사는 李孝向에게 대학, 중용 등을 배워 신동의 칭호를 얻었다고 한다. 김시습이 신동이란 소문을 들은 승상 허조까지도 그를 찾아 시험해 보고는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하며, 세종도 그의 재명을 듣고 지신사 박이창을 시켜 승정원에 김시습을 불러놓고 그의 재능을 시험해 보라 하였다고 한다. 세종이 김시습을 친견하여 ‘三角山詩’를 짓게 하고 감탄 끝에 명주 50필을 하사 하면서 손수 가지고 나가라 하여 그 의량을 보고자 하였다고 한다. 이

11) 광정식, 《한국문학사상의 이해》, 2001, 신지서원, 180쪽



와 같이 승정원에 들어가 세종의 총애를 받았던 김시습은 13세까지 대사성 金泮<sup>12)</sup>에게 《孟子》, 《詩經》, 《書經》, 《春秋》 등을 배웠고, 또 대사성 윤상에게는 《周易》, 《禮記》, 《第四紀》, 《諸子百家》 등을 배웠다고 했으니 김시습도 성균관에 입학하여 정균관의 장인 김반, 윤상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5세 되는 해에 그의 자모를 여의고 외가의 농장으로 내려가 몸을 의탁하던 중 3년을 채 마치치지 못하여 외숙모가 운명하여 다시 서울로 올라왔으나, 이때에 부군은 중병으로 말미암아 가사를 돌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렇게 중첩하는 가정적 파란 속에서 그는 다시 계모를 맞이하였고, 이어서 훈련원 도정 남효례의 딸을 맞아 장가도 들었으나, 그의 앞길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만 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는 학업을 이루지 못할 것을 깨닫고 드디어 번거로운 장안을 등지고 삼각산 중흥사로 들어갔다. 삼각산 중흥사에서 독서하고 있을 때, 단종이 유충으로서 등극하였다가 곧 세조에게 찬탈을 당하였다는 소문을 들은 김시습은 대성통곡하면서 서적을 모두 불살라 버리고는<sup>13)</sup> 머리를 깎아 중이 되어 금강산에 들어가서 「오세암」이란 암자를 지어놓고 거처하면서 자기의 호를 「설령」이라 하니 그때가 바로 24세였다.

그는 금강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량진에서 사형을 당한 사육신의 사체를 두려워서 아무도 수습하는 이가 없는 것을 개탄하고는, 밤중에 삼각산에서 내려와 언덕에 매장하고는 올라갔다고 하는데, 김시습으로 인하여 오늘날 사육신묘가 있게 되었다고 한다.

광인으로 자처한 그는 남루한 옷을 입고 새끼 띠를 띠고 폐양자를 쓰고는 걸반 승으로 돌아다니면서 도처에서 왕태를 연출하였다고 한다. 방랑기 때의 그의 행적과 내력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자신의 술회서인 思惟錄에 의하면 21세에서 24세에 이르는 기간은 송도, 평양 등 관서지방으로 향하였으며, 25세

12) 김반은 권근의 문인이며 세종조의 집권전원으로 명성이 높았는데 김구(金鉤), 김말(金末)과 함께 經學三金으로 일컬어졌다. 심경호(2000.6.28 《金鰲新話》 홍익출판사, 19쪽)

13) 두 차례에 걸쳐서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를 세조의 단종폐위 사건으로 돌리고 있으나 순전히 그 일 때문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본시부터 산수를 벗 삼아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그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단종 폐위 사건으로 보인다. 박정식 《한국문학사상의 이해》, 2001, 신지서원, 189쪽

에서 26세 때에는 금강, 오대 등 관동지방을, 27세에서 30세 사이에는 백제 고도 호남지방을 두루 편력하였다고 한다

김시습은 29세 되던 세조 8년(1462)에 상경했다가, 효녕대군의 간청에 따라 세조의 불경 언해사업을 잠시 도와 내불당에서 교정을 맡아 보다가 마지막으로 영남 유람의 길을 떠나 경주의 금오산을 찾아보고는 방랑생활을 청산하였다. 영주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오산실을 복책하였다. 그 후 김시습은 30세부터 37세까지 금오산실에 은거하면서 瞿佑의 《剪燈新話》를 탐독하고, 《金鰲新話》를 지은 것이다.

김시습이 31세 되던 세조 11년(1465)에는 짐을 꾸려 경주로 내려가서 경주 남산 금오산에 금오산실을 복책하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치기로 한다. 그는 금오산 남변 동구에 있는 용장사라는 절에 머물렀으며, 매월당이란 그의 서재를 근거로 하여 신라 고도의 천년유지를 널리 노닐면서 인생과 자연을 해석하고 사색한 후 《金鰲新話》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sup>14)</sup>

현재 전하는 문헌으로는 그가 다시 경주로 간 흔적이 없으며, 또 이 시기 이후의 그의 시문을 보면 그가 금오산실로 가지 못하여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꿈에 그곳에 가서 놀았다는 내용의 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金鰲新話》의 제작연대는 금오기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의 이 금오기는 건강이 아주 좋지 못하여 병상에서 매우 신음하고 있었던 것임을 당시에 지었던 그의 시문을 통하여 짐작하게 하는 바 그 만큼 그는 한층 더 인생과 자연을 심각하게 관찰하고 해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금오산실의 생활을 끝내고 서울에 돌아와 성동의 폭천정사로 온 것이 37세 봄이니, 이 무렵은 시습이 정신적으로 몹시 갈등을 느끼는 때이다. 이때 세조, 예종의 뒤를 이어 성종이 즉위하여 승유억불정책을 내세워 널리 인재를 구할 무렵이다.

김시습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편승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 사고로 접근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자신의 생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고 뜻과 같지 못했다. 서거정, 김수은, 정창손 등 당대의 명사들을 경멸하고 모욕하던 것도

---

14) 31세부터 37세에 이르는 황금기를 보내면서 《金鰲新話》를 짓고 수 많은 시편들을 유금오록에 남겼다. 옥루탄이라는 시에서 그는 금오산에 기거할 당시의 착잡한 심경을 잘 나타내고 있다. 광정식 《한국문학사상의 이해》/2001/신지서원/181P

바로 이 무렵의 일이다.

47세 때는 홀장발위문이제조약부라 하며 다시 환속하여 돌아와 조상에 제사지내고 결혼도 하였으나 또 다시 상처를 당하고 가정적으로도 불행을 겪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냉대를 받자 스스로의 경망을 후회하며 방랑의 길을 떠난다.

성종 14년 그가 49세 되는 해에 찾은 곳은 관동지방이었다. 강릉, 양양, 설악, 한계, 청평, 춘천, 수천, 사탄 등지를 대경과 자사를 이끌고 편력하면서 혹은 지방전년을 敎誨하기도 하고 혹은 상산완수하면서 흥이 일면 시구와 문장으로 그의 회포를 풀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끝에 다른 곳이 충청도 홍산 무량사였다.

성종 24년 2월 어느 날 낭랑히 뿌리는 봄비에 59세의 일기로 그는 生涯를 끝맺었다.

## 제2절 作品 構成

### 2.2.1 《剪燈新話》

먼저 《剪燈新話》의 뜻을 보면 “剪燈”이라는 뜻은 등잔불을 켜놓고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 등불이 가물가물 해지면 심지를 다시 돌아 그 끝을 가위로 잘라 다시 불빛을 환하게 밝히는 데서 유래 되었다.

처음에는 40권으로 《剪燈錄》이라는 이름이었으나 지은이가 필화사건으로 유배되었을 때 모두 散亡되고 말았다.

그 뒤 蒲江尹 호자양이 자기의 서기인 전이화로부터 《剪燈新話》 사본 4권을 얻어 瞿佑에게 부탁하여 영락제 19년에 교정한 것이 지금에 전하여지는 것이다.

瞿佑의 《剪燈新話》는 모두 4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권마다 5편과 부록 1편 등 총 21편의 전기소설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559년 주해되어 《剪燈新話 救解》<sup>15)</sup>라는 2권2책으로 간행되어 현재 중앙도서관, 고려대, 이화여대, 건국대 등 도서관에 보관중이다.  
 각 편에 수록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권

- 水宮慶會錄 - 용궁의 낙성식 잔치
- 三山福地志 - 삼산의 복 받은 땅
- 華亭逢故人記 - 화정에서 만난 친구
- 金鳳釵記 - 봉황에 새긴 금비녀
- 聯芳樓記 - 연방루의 두 자매

### 2권

- 渭塘奇遇記 - 위당에서 맺은 기연
- 舍狐生冥夢錄 - 영호생의 저승구경
- 天台訪隱錄 - 천태산의 은둔자
- 滕穆醉遊聚景園記 - 등목이 취해 놀던 취경원
- 牧丹燈記 - 모란등의 여자귀신
- 渭塘奇遇記 - 위당에서 맺은 기연

### 3권

- 富貴發跡司志 - 부귀 발원의 서낭당
- 永州野廟記 - 영주 들판의 사당
- 申陽洞記 - 신양동의 원숭이
- 愛卿傳 - 애경의 절개
- 翠翠傳- 취취의 사랑

---

15) 《剪燈新話救解》의 현존 최고본으로 알려진 일본 내각문고본. 두 가지 형태의 판심제가 존재하고, 같은 판심제 중의 하나가 규장각본에 나타난다.

#### 4권

龍堂靈會錄 - 용왕당의 신령 모임  
太虛司法傳 - 귀신 잡은 태허전 판관  
修文舍人傳 - 저승에서 온 수문사인  
鑑湖夜泛記 - 감호에서 만난 선녀  
綠衣人傳 - 푸른 옷 여인의 연분

부록 - 秋香亭記 - 추향정의 추억

《剪燈新話》의 공간적 배경은 주로 자신이 살았던 江蘇省, 浙江省의 명승지가 대부분이다.

작자에게 익숙한 지역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에 친근감이 더해졌으며, 용궁, 저승, 이상향 등의 내용으로 혼란하고 암울한 현실을 초월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소재의 시간적 배경은 대부분 원말명초로 설정되어 있다.

瞿佑는 동정심에 가득 찬 필치로 金定과 劉翠翠, 趙生과 羅愛愛 부부의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을 그려냄으로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항주에서 민간에 전해지던 西胡 관한 전설과 古史도 剪燈新話에 들어갔다. 서호에서 전해지던 애절한 사랑을 표현한 <綠衣人傳>은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흥매각, 이혜량이라는 희곡의 소재가 되었다.

부록으로 기록한 <秋香亭記>에서는 瞿佑의 고향 친구 상생의 이루지 못한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옆에서 보고 듣고 기록하였으나 사실적인 면에 있어서 후대에 명문으로 알려져 내려온다.

### 2.2.2 《金鰲新話》

《金鰲新話》에는 <萬福寺栲蒲記>, <李生窺牆傳>, <醉遊浮碧亭記>, <龍宮赴

宴錄>, <南炎浮洲志>등 5편이 수록되어 있다.

원래는 이 5편이 作者가 지은 전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5편 밖에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그것도 국내에는 필사본 밖에 없고 일본에서 간행된 것을 1927년 《啓明》》 16) 제 19호에 崔南善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작가 김시습의 세계관적 특성은 先人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3教를 두루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불교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도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도교를 건강 유지를 위한 비결로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신선사상은 현실을 떠난 것으로 世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비판을 가하였던 것이다.

김시습은 유학이든 불교든 그 핵심은 養心이며 이것이 충족되면 세상사에 걸림이 없을 것인데 무엇 하러 구구하게 字句에 골몰 하겠는가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개별 작품 간의 차이가 있지만 《金鰲新話》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회적 태도, 즉 일상에 대한 태도는 ‘超脫’ 이라고 할 수 있다.

《金鰲新話》의 남자주인공들은 서사적 맥락에서 이유가 당연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통적으로 현실을 떠나는 것으로 행적을 마감하고 일상을 초탈한다. 이는 더 이상 도를 행할 수 없었던 사회와 현실을 등지고 홀로 몸을 선하게 하기위해 산으로 유람을 떠났던 김시습 자신의 사회적인 태도가 투영된 것이라고 본다.

물론 현실의 삶 모두를 부정하고 초탈하는 것은 아니다. <李生窺牆傳>에서도 보여 지듯이 이생과 최량의 사랑을 통해서 유학적세계관에서 중시하는 절의를 드러냈다.

일상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이생을 통해 유교의 입신양명을 나타냈고,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비현실적 존재로 그려지는 최량의 모습에서마저 유교에서 중시하는 지조, 절개와 같은 윤리적 양심을 그려내고 있음을 볼 때 김시습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유교의 세계관인 듯하다. 보다 근본적인 세계관은 유학에 두고 상황에 따라 불교, 혹은 도교와 어울리면서 현실의 문제로부터 초탈하면서도 그 삶 속에서의 節義나 得志를 지향하는 삶을 은연중에 긍정적으로

---

16) 1921년 5월 1일 창간, 1933년 1월 27일 통권 제24호로서 중단된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의 기관지.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는 지식인 33인의 발기로 결성된 친목단체로서 ‘조선 문화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잡지를 간행한다고 천명하였다.

그려내고 있다.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일상에 메일 수 밖에 없는 인간으로서의 모순된 삶을 자각한 김시습은 일상에 구애받지 않고 현실의 굴레를 벗어던진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를 통해 보다 자유로운 생각의 욕구를 펼침으로서 유일한 만족을 얻고자 하였던 것이다.

### 제3절 作品의 性格

#### 2.3.1 《剪燈新話》

원대의 당쟁 싸움과 흉년, 전염병으로 시작된 농민 봉기의 권력을 잡은 태조 홍무제는 건국 초기부터 자신의 왕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제정치를 강화한다. 당송에 비하여 더욱 완비된 학교제도와 사대부들의 효율적인 통치방법으로 과거제도를 시행하였다. 홍무제는 수도에 국자감이라 불리는 국립학교를 설립하고, 지방에도 각각 부, 주, 현에 학교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들 학교는 단순히 과거의 자격을 얻기 위해 재적만 하고, 공부를 하는 장소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이것과는 별개로 민간에서는 사학이라 불리는 사립학교가 존재하여 농민의 자제들에게 책 읽는 법, 계산하는 법을 가르쳤다.

과거제도는 五經大全<sup>17)</sup>과 四書大全<sup>18)</sup>을 법정과목으로 국한 시켰고 고시에서 문장을 짓는데 주희의 주석에 근거해서만 풀이하는 이른바 程朱理學<sup>19)</sup>의 사상만을 강요하며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

《剪燈新話》 1권 <三山福地志>에 나오는 다만 옛날에 한 말의 물로 수레 바퀴자국에서 말라죽어가는 붕어를 살려준 일이 있듯이, 한 그릇의 밥으로 뽕

17) 유학의 오경으로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가 있다.

18)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경전

19) 사물을 窮究한다는 것을 두고 여러 사물 속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理를 찾아내는 것. 程朱學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정이(1033-1108)와 주희(朱熹, 1130-1200)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 밑에서 굶어 쓰러져가는 사람을 살려준 일이 있듯이...<sup>20)</sup>는 《장자》의 <外物>에 나오는 글귀와 《좌전》 <선공>에 나오는 고사성어를 인용한 것과 2권 모란등기에서 애초에 뽕나무밭에서 만나자는 것과 같은 약속은 없었지만 오늘 달빛 아래에서 서로 만났으니...<sup>21)</sup>는 《詩經》의 <桑中>장에 나와 있는 글귀 등으로 여러 경전들을 열거해서 소설과의 연결 고리를 애써 부각시켰다. 이는 지배층과 사대부들에게 범정과목을 통하여 도덕적 입장과 백성을 교화한다는 주원장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剪燈新話》는 瞿佑 개인의 순수한 창작물이라기보다는 옛날부터 전해오던 이야기를 손질해서 문자로 옮겨 적은 것으로 擬話本의 성격이 강하다.

명대이전의 소설은 주로 說唱文學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생활하는 민간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학으로 발전되었다.

전문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사용한 底本을 바탕으로 작품을 지은 경향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剪燈新話》가 錄, 志, 傳, 記란 제목으로 편찬되었으니 錄으로 볼 때에 당시 전해져 내려오던 옛이야기들을 베껴 기록하고 후세에 전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剪燈錄과 《剪燈新話》가 서로 다르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한다.<sup>22)</sup> 瞿佑가 전등록을 홍무 11년에 지었다고 했으나 작가 자신이 한 번도 《剪燈新話》를 거론하지 않은 점에 후대의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두 작품을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호자양의 剪燈新話卷後記, 안벽의 秋香亭記拔, 당약의 剪燈新話卷後志등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고 각 집 뒤에 붙였던 시 4수를 《剪燈新話》 뒤에 붙였던 점등을 볼 때 별개의 작품으로 보기 보다는 한 작품으로 인지했다.

《剪燈新話》는 당시 다양한 계층들의 삶과 애환을 서술한 것으로서 사실적인 경향이 많다. 瞿佑의 과란만장한 인생역정을 고려한다면 그의 일생에서 소설 창작은 단순히 여가나 취미활동을 뛰어넘어 당시의 현실에 대한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서술 했기에 현실 참여적인 주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내용이 다채롭고 문장의 百體가 구비되어 있는 《剪燈新話》는 많은 독자층

20) 但願損斗水而活潤轍之枯，下壺殮而救鬻桑之餓....., 이병혁 저, 《剪燈新話》, 태학사, p69

21) 初無桑中之期，乃有月下之遇)...., 정용수 저, 《剪燈新話句解譯註》, 2003, 푸른사상, p617

22) 이시찬, <明代新話類小說의 소설사적 意味>, 동방한문학회, 2008



을 형성하였는데 청대 蒲松齡의 《聊齋志異》와 조선전기 김시습의 《金鰲新話》, 일본에서는 伽婢子와 雨月, 物語<sup>23)</sup>, 베트남에서는 전기만록 등의 작품으로 새롭게 탄생하며 동아시아에 전등의 바람이 불게 되었다.

### 2.3.2 《金鰲新話》

그는 유교와 불교에 걸치는 학자로서 사상서 저술은 《梅月堂集》의 문고에 수록되어 있으며 불교관계 저술로는 《十玄談要解》, 《妙法蓮花 經別讚》이 전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사상사에서 우주만물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시도 한 최초의 철학자로 볼 수 있다. 만유의 존재를 해명하는 논리로 氣를 제기 함으로써 서경덕에서 최한기로 발전한 우리나라 氣철학을 열어 놓았다. 그의 한시작품은 모두 15권의 분량에 이르고 있으며 시세계는 자연과 인간만사로부터 천재의 자유분방한 상상력에 이르기까지 담아내지 않은 것이 없다할 정도로 방대하고 풍부한데 그 사회사상의 시적표현은 현실주의 문학의 빼어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오신화는 전기소설을 계승 발전시킨 형태로 5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작가의 심오한 인간정신, 고도의 상상력이 어울려 저서 각기 개성적이고 예술성이 높은 작품으로 완성 된 것이다. 김시습은 시대와 불화했던 체제 밖의 지식인이었다.

그의 고결한 인품, 굳센 지조는 후세에 길이 존경을 받게 되어 선조는 특별히 율곡 이이에게 그의 전기를 짓도록 하는 한편 《梅月堂集》을 발간하도록 명했고, 정조는 淸簡公이란 시호를 내려 그 풍모를 기렸다. 김시습은 고독한 예외자로서 반발에 찬 생애를 보내며 스스로 身世矛盾이라고 일컬은 갈등을 여러 가지 표현방식을 택하여 나타냈다. 시를 짓는 데 줄곧 열의를 가지고 논설도 힘써 썼다. 불교, 도교, 유교의 글쓰기를 모두 시험하기도 했

23) 임진왜란을 통하여 일본에 《剪燈新話》가 유출되었고 이후 모방한 작품이 출현한다. 閔寬東 《中國古典小說史料叢考》 아세아문화사, 36p

다. 그래도 해소 할 수 없는 욕구를 그는 소설을 써서 표출하였다. 논설은 기존의 용어나 개념을 택하여 자아를 세계화해야 하는 탓에 내면의 요구를 생동하게 드러낼 수 없었다.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찾아 설화 모으기에는 너무나도 절박한 사정 때문에 고민하고, 설화로는 해소할 수 없는 문제의식의 압박을 받았다.

중국 명나라 사람 瞿佑의 《剪燈新話》를 애독한 것이 자기도 소설을 짓게 된 직접적인 동기일 수도 있었다. 김시습은 금오신화가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글을 짓고, 풍류스럽고 기이한 이야기를 갖춘다고 말 하였다. 김시습은 전등신화라는 작품을 통해 본질적인 자기를 발견한 기쁨에 전등신화보다 한층 더 성숙된 글을 써내려갈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금오신화가 창작된 15세기는 실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과학, 문화 전반에 걸쳐 유례없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시기였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졌고, 각종과학기구들의 발명, 수많은 서적들의 편찬사업들을 이룩하여 우리 민족 문화발전 사상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보였다. 하지만 이 시기 세종이 죽고 나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단종과 그 쪽 신하들을 죽이고 수양대군(세조)이 왕위찬탈을 하였다. 비정한 역사의 흐름에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김시습은 방랑의 길에 들어선다. 그리하여 경주 금오산에 집을 짓고, 저술하였는데 금오신화는 이때 지어진 것이라 한다. 김시습은 생사나 귀신은 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生死說, 神鬼說 등의 논설을 지어 말했다.

귀신론은 조선 전기 철학사상의 중심논제였다. 귀신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 고대시대의 사고를 비판하면서 귀신을 정리하느라 새로운 사상이 요구되었다.

오랜 논란을 거쳐, 다른 귀신은 다 부정하고 후손의 제사에 감응하는 조상의 혼령만 인정하는 이기이원론의 귀신관이 정통의 자리를 굳혔다. 그런데 김시습은 사람이 죽으면 기가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하는 기일원론의 이론을 펴면서, 다만 억울하게 죽은 원귀는 기가 일시에 흩어지지 않고 얼마 동안 떠돈다고 하였다.

금오신화는 저승, 용궁, 귀신등 비현실적인 존재를 다수 등장시킨 기이한 이

야기이다. 그런 이유에서 후대의 소설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견해이다. 소재를 주제라고 여기지 말아야하며 저승이나 용궁은 이승의 현실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설정이라고 해석함이 옳다고 본다. 귀신이야기를 이용해 사람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 김시습의 이야기방식의 선택이었다.

또한, 김시습은 기존의 설화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작품을 만들어냈다. 특히, 작가는 억울하게 죽은 사정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원귀를 등장시켰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던 당시의 단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한다. 세조의 왕위찬탈에 원통하여 방랑의 길을 떠나기까지 했던 김시습으로서는 이야기 속의 인물과 세계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하고자 했던 말을 하고자 했던 것 같다.

#### 제4절 동아시아에서의 受容樣相

동아시아의 중국·한국·일본·베트남은 중세의 오랜 기간 동안 漢文을 共通된 文語로 사용하여 왔다. 7세기 중국에 隋·唐제국이 들어서면서 한문을 공통문어로 한 동아시아 문명권의 판도는 크게 넓어졌다. 동아시아 각국의 문학 가운데 전기 작품은 중국 唐朝(721~936)시기에 가장 먼저 출현하였다. 이후 唐 傳記의 빼어난 작품들은 중세 내내 동아시아 각국에 큰 영향을 끼쳤다.

唐 傳記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은 중국 明代의 瞿佑가 창작한 《剪燈新話》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각 나라별로 한국에는 《金鰲新話》, 일본에는 《伽婢子》, 베트남에는 《傳奇漫錄》이 대표적인 전기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剪燈新話》의 출현으로 인하여 전기소설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나라별로 마련되었으나 단순한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지리적, 민족적, 관습적인 차이를 지녀 독창적인 작품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런 점에

서 각 나라의 작품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아닐 수 없다.

일찍이 李學周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4개국 전기소설을 비교고찰한 바 있다. 그는 《金鰲新話》의 경우 단순한 영향의 차원을 넘어 전기소설의 관습을 서술전략으로 활용해서 작품의 미적 가치를 한 차원 높였다고 하였으며, 《剪燈新話》는 각국의 본격적인 전기소설이 나올 수 있도록 직접적인 자극을 주었다는 데에 그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sup>24)</sup>

그리고 全惠卿은 중국, 한국, 베트남이라는 세 나라에 관한 연구에서 《金鰲新話》와 《傳奇漫錄》이 《剪燈新話》로부터 전기소설의 양식을 다 같이 수용하였으나, 《金鰲新話》는 작가의 창작의식과 창작동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작품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傳奇漫錄》은 베트남의 설화적 소재와 토착 신앙 및 지형적 문화적 특성이 잘 나타난 작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sup>25)</sup>

#### 2.4.1 《剪燈新話》와 《傳奇漫錄》

《傳奇漫錄》 서문에 《剪燈新話》의 영향을 밝혀 적은 시기가 1547년이고 嚴從簡이 지은 《殊域周咨錄》 卷六의 <安南>편에 보면 당시 안남에 이미 《剪燈新話》, 《剪燈餘話》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掖垣人鑑》 卷14에 보면 嚴從肝이 벼슬하던(1559~1574)에 《殊域周咨錄》이 책으로 엮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安南으로 《剪燈新話》가 전래된 시기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로 보여진다.<sup>26)</sup> 이처럼 전래된 《剪燈新話》는 작자 阮嶼에 의해 《傳奇漫錄》을 창작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何善漢이 쓴 《傳奇漫錄》 序文에는 “그 문자를 보건대 종길의 울타리(구우의 剪燈新話) 밖을 나가지 않는다”<sup>27)</sup>라고 밝힘으로써 《剪燈新話》를 보고 《傳奇漫錄》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24) 이학주,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예술적 특성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9, p178참조

25) 전혜경, <韓·中·越 전기소설의 비교연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1994, p118참조

26) 阮嶼, 傳奇漫錄, 프랑스遠東學院出版, 臺灣學生書局印行, 中華民國七十六年, P4쪽 참조.

27) 阮嶼, 《傳奇漫錄》 序文, “觀其文辭 不出宗吉藩籬之外(瞿宗吉 著 《剪燈新話》)然有警戒者....”. 《傳奇漫錄》 類庵會註本, 1712

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剪燈新話》가 베트남에 들어와 있었고 《傳奇漫錄》도 계속적으로 출간된 점으로 보아 《剪燈新話》나 《傳奇漫錄》이 사대부층에 널리 읽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傳奇漫錄》은 계속 출간되었으나 모두 유실되고 現傳 《傳奇漫錄》은 신편과 구편 두 가지 종류의 판본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중 일본 동양문고와 북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類庵會註本》(1712년간행)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傳奇漫錄》이 출현한 이후 월남에 유사한 작품들이 많이 나온 점을 미루어 보아 월남 漢文小說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면서 傳奇小說類의 맥을 잇게 되었다.

#### 2.4.2 《傳奇萬緣》과 《金鰲新話》

《傳奇萬緣》과 《金鰲新話》는 중국 《剪燈新話》의 영향을 받았을 뿐 양 작품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은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韓·越 양국의 접촉은 중국을 통한 양국 사신의 접촉이나 해류를 통한 접촉이었는데, 한국의 《金鰲新話》는 석실에 감추어져 있어서 널리 읽히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양 작품의 영향관계를 추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베트남의 《傳奇萬緣》과 한국의 《金鰲新話》는 다 같이 중국 《金鰲新話》의 영향을 받았음이 밝혀졌는데, 양 작품의 저작 시기를 보면 《傳奇萬緣》이 16세기 초로 추정되고, 《金鰲新話》는 김시습이 금오산에 칩거할 시기(1465~1470)인 15세기 중반으로 보여져 양 작품 사이에는 50여년의 시차를 보인다.

여기서 《剪燈新話》의 전래시기를 비교해 보면 한국(15세기 전반), 일본(15세기 후반), 베트남(15세기말~16세기초)의 순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베트남보다 한국에서 더 빠른 전래를 보이는 것은 각국의 시대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 사대부층의 독서 열도 그 중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剪燈新話》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 나타난 것을 비교하면 한국, 베트남, 일본의 순으로 한국이 가장 빠르다.

그러나 한국 《金鰲新話》의 출현은 《剪燈新話》의 주석본이(1549년, 1559년)보다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이은 번각의 자취나 모방작이 드물고 필사본만 겨우 전해진 정도이다.<sup>28)</sup> 반면, 중국, 베트남, 일본은 공통적으로 판본의 간행이 계속되면서 모방작이 계속 출현되어 傳奇小說의 맥을 이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剪燈新話》는 중국 본국뿐 아니라 한국, 베트남, 일본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어 동아시아 전기소설을 출현시키는 산파의 역할을 하였다. 다만 他國과 달리 한국에서는 모방작이나 그 맥이 뚜렷이 나타나지 못한 것은 동시대 작가들이 김시습을 수용한 태도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교적 질서에 역행하는 당시 조선의 정치, 사회적 이념 속에서 방황하던 작가가 《剪燈新話》를 공식적으로 유포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한데 이와 같은 점은 세 작품의 내용에 대한 비교에서 좀 더 드러나리라 여겨진다.

위에서 논술한 세 작품의 특성을 비교하여 문학사적 의의를 추출해보면 《剪燈新話》, 《金鰲新話》는 문화 및 토착신앙의 특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인물유형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金鰲新話》는 주인공과 상대자의 신분의 차이를 극대화 시키도록 인물이 설정되어 있다. 작자의 창작의도가 세 작품 중 가장 강하게 내재된 설정방법을 취하고 있다.

《金鰲新話》와 《傳奇萬緣》의 특성에 비추어 《剪燈新話》를 비교해 보면 《剪燈新話》는 다양한 인물, 배경,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나 《金鰲新話》처럼 작자의 창작동기가 표면에 부각된 면이 보이지 않고 또 《傳奇萬緣》처럼 창작 기법상 미숙함을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剪燈新話》는 독자의 흥미와 작자의 교훈적 창작의도를 목적으로 창작한 소설로서 설화적 요소와 소설적 요소가 적절히 공존하고 있는 傳奇小說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에 《金鰲新話》는 작자의 뚜렷한

---

28) 근래 새로 발굴된 《企齋記異》중 ‘崔生愚眞記’나 ‘何生奇愚傳’은 금오신화의 모작일 가능성이 높다. 蘇在英, 企齋記異研究(고대 民族文化研究所, 1990). 김시습은 조선 초기의 서사 문학사에서 방외인 작가로서 전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金鰲新話》도 이후의 몽유록이나 전기소설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시대의 작품들에서 직접적인 인용이나 모방의 흔적은 찾기 힘들다. 그만큼 김시습은 돌출적인 존재였다고 볼 수 있다.

창작동기를 구현한 작품으로, 《傳奇萬緣》은 베트남의 문화적 토양의 특성이 비교적 잘 나타난 작품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剪燈新話》는 동양권 傳奇小說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발신자의 역할만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작자의 의도가 많이 개입되지 않은 작품 자체의 미학적 가치 또한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剪燈新話》가 지닌 미학적 가치는 영향의 수수관계를 낳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여 동아시아 문학사에서 《剪燈新話》를 발신자로 하여 한국의 《金鰲新話》, 베트남의 《傳奇萬緣》으로 지역적 변이를 일으키고 또한 각각의 작품들로 하여금 본격적 傳奇小說시대를 여는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만 수신자로서 받은 영향보다는 지역적 풍토와 역사에 따라 이질적 작품으로 변모하여 다시 자국 傳奇小說의 정신적 역할을 하고, 소설사 내지 문학사에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문화적 상관성과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징검다리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 제 3 장 《剪燈新話》와 《金鰲新話》의 內容比較

#### 제1절 〈藤穆醉遊聚景園記〉과 〈萬福寺樗蒲記〉比較

두 작품은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결말의 기본 서사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 이면서도 그 세부에서는 여러 차이점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죽은 여인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藤穆醉遊聚景園記〉에서는 첫 만남의 순간에서부터 여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sup>29)</sup>

저의 이름은 방화이고, 성이 위씨로 옛 송나라 이종 때 궁녀지  
요, 나이는 스물셋에 죽어서 취겨원 옆에 묻혔습니다.  
(芳華姓衛, 故宋理宗朝宮人也, 年二十三歿, 嬪於此園之側)<sup>30)</sup>

이에 비해 〈萬福寺樗蒲記〉에서는 적으로 寶蓮寺에서 대상을 치르는 순간까 지는 사실 확인이 보류된다. 여인의 부모가 죽은 딸아이의 사연을 양생에게 알려 주어서 비로소 알게 된다.

내게는 오직 딸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왜적이 침입하여 난리치는  
때에 적에게 해를 입어 죽었다네. 난리통이라 묘지를 정해 체대  
로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개령사의 골짜기에 임시로 매장을 하였  
지. 그리고는 이리저리한 일 때문에 그대로 두고 아직 장례를 치  
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네, 잠시 祭需를 갖추고 공양

29) 이병혁, 《剪燈新話》, 2002, 대학사, 290p

30) 정용수, 《剪燈新話句解》, 2003, 푸른사상



의 자리를 열어 저승길을 추도하려고 한다네. 그대는 딸아이와의 약속대로 딸아이를 기다렸다가 오게. 부디 조금도 놀라지 말게 나!

(「吾止有一女子，當寇賊傷亂之時，死於干戈，不能窺窆，殯于開寧寺之間，因循不葬，以至於今。今日大祥已至，暫設齋筵，以追冥路。君如其約，請俟女子以來，願勿愕也。」<sup>31)</sup>)

그렇기 때문에 정체가 의심스럽고 모호한 양생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3일에 지나지 않으며 함께 보낸 공간도 여인이 임시로 묻힌 개령동이다. 이에 비해 처음부터 혼백이라는 것이 명시된 〈藤穆醉遊聚景園記〉에서는 여인이 이승의 존재로 있을 수 있는 시한인 3년을 함께 살고, 그 공간도 여인의 무덤이 아닌 등목의 고향집이다.

이런 차이로 인해, 혼백과의 만남과 이별이 현실인 듯 아닌 듯, 꿈인 듯 아닌 듯,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 듯 아닌 듯한 전기적 미감은 〈萬福寺樗蒲記〉에서 좀 더 짙게 묻어나온다. 더불어 고향과 가족 친지가 있는 등목의 풍류적 삶과 사고무친 양생의 고독한 삶, 궁녀로서 못다 한 남녀의 정을 이루기 위해 나타난 혼백과 전쟁터에서 정절을 지키다 왜구에게 죽임을 당한 원혼 등을 대비해 읽어보면 그 만남의 절절함과 이별의 비감 또한 萬福寺樗蒲記에서 좀 더 진하게 배어나온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주인공들의 초월적 사랑과, 여인을 떠나보낸 이후 그 슬픔과 허무함을 다스리지 못하고 산으로 들어가 부지소종한 남성 주인공들은 두 작품 모두 한결같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양생은 그 뒤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세상을 마쳤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生後不復婚嫁 人智異山採藥 不知所)」<sup>32)</sup>

31) 김시습 著, 《金鰲新話》, 2009, 민음사

32) 김시습 著, 《金鰲新話》, 2009, 민음사

공간적인 배경은 전라도 남원을 배경으로 하고 시대적 배경은 고려 말 왜적의 침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萬福寺樗蒲記>는 《金鰲新話》에 실려 있는 5가지 작품 중에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배경사상이 외관상은 불교인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작품의 끝 부분에서 사랑하던 여인이 저승으로 떠나면서 정업을 닦아 속세의 누를 벗어날 것을 양생에게 권유하는데 이것은 불교적 지향이다.

그러나 양생은 이 부탁을 외면하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그 행방을 감추었는데 이는 불교도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제해 주지는 못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김시습을 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萬福寺樗蒲記>의 양생은 조실부모한 고아로 외롭게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김시습 역시 열다섯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는 중병을 앓는 불우함을 겪었다. 또 <南炎浮洲志>의 문답들 역시, 상당 부분은 김시습의 주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가 하면 <龍宮赴宴錄>에서 용왕의 부름을 받고 용궁을 다녀오는 한생은 세종대왕의 부름으로 어린 나이에 궁궐을 다녀온 김시습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김시습은 허구적인 인물들을 내세워서 자기 이야기를 했던 셈이다. 《金鰲新話》에 이르러 비로소 창작 의식을 분명히 했다고 하겠다.

작가 김시습은 개인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매우 불우한 그래서 더욱 고독한 자신의 처지를 작품에 투사하면서,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제대로 쓰일 수 없는 딱한 처지를 은근히 드러내어 사회를 비판했다. 그는 이런 주제를 재미있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 종래의 설화 등에서나 보이던 귀신을 사랑한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시와 논설을 적절히 구사하면서 주제 의식을 한껏 키워냈다.

또, 이 소설은 소설적 상상력이 풍부하게 나타나 있고, 한국인의 생사관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육체가 죽어도 정신은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것, 즉 저승과 이승을 일원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전통적 생사관의 요점이다. 죽은 사람이라도 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정신이 이승에서 방황하면서 원귀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양생이 사랑을 나눈 혼령

은 바로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어느 소설이든 소설이라고 하면 주인공과 세상 사이의 불화가 중심인 법인데, 《金鰲新話》는 그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 <萬福寺樗蒲記>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로 일관 되어져 있고 주된 구성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적 구성이다. 이때 만남은 인연에 의한 것이고, 이별은業에 의한 것이다. 자세한 구조를 起承轉結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起에서는 주인공 양생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는 조실부모하고 혼자 만복사 동쪽 방에서 살고 있는데 공중에서 배필 얻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 부처 앞에서 저포 내기에서 이겨서 여인과 불전에서 만나게 되어 萬福寺 행랑 끝에서 정을 나누게 되어 함께 여인의 집에 가서 사흘을 지낸다.

承에서는 여인과 이별하면서 보련사로 가는 길에서 재회 할 것을 약속하고 여인의 정표인 주발로 인해서 보련사에서 여인의 부모를 만나 여인이 2년 전에 왜구에 죽은 혼령임을 알게 된다.

轉에서는 함께 하룻밤을 지냈으나 업을 피할 수 없어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다.

結에서는 여인 부모의 인정과 재산을 증여 받고 정식으로 장례와 제를 지냈으나 여인의 재산을 모두 팔아 재를 올려 명복을 빌었다. 그 결과 여인은 仙國의 남자로 환생하게 되었다.

앞에서 起承轉結로 나눈 것은 한 단락에 하나씩의 갈등과 화해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起의 경우 양생의 외로움으로 인한 비극적 현실 인식이 갈등이라면, 삼세 인연으로 인한 처녀의 만남은 화해로 볼 수 있다. 承의 경우는 여인과의 이별이 갈등이라면 환신임으로 인해서 다시 재회함이 화해적인 구조이다. 또한 轉, 結은 현실에서 여인을 영원히 사랑하지 못함을 인식함을 갈등으로 본다면 업으로 인한 不知所終함은 영원한 것과 화해적인 요소로 파악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갈등과 화해의 양면 구조가 주된 구성 방식이다. 瞿佑의 <藤穆醉遊聚景園記>는 中國 浙江省 북부에 있는 영가라는 縣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1378년 무렵에 완성되었다. 古今의 怪談奇聞을 엮어 만든 이 책은 唐代 전기의 계통을 이은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이야기가 많으며, 문체도 화려하

다.

작중 인물은 《金鰲新話》의 인물과 비교해 보면 세세한 차이가 없을 수가 없겠지만 대체적인 윤곽은 비슷하다. 글 잘하는, 재주도 있는, 아주 외로운 선비가 원통하게 죽은 여자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끝내는 헤어진다.

작품에 깔린 기본 정서는 절절한 외로움이다. 외로우니까 누구를 만나야 하고,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은 귀신을 만나게 된다. 지금도 그렇듯이 소설의 주인공은 대체로 고독하다. 애인이 없어서 고독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뜻을 펼쳐 보고 싶지만 도무지 세상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하다.

간략히 두 작품을 살펴보았다.

두 작품의 유사점으로는 <藤穆醉遊聚景園記>의 기록과 <萬福寺樗蒲記>의 기록이 문체가 같고 여주인공의 등장과 함께 시녀를 대동한다는 점, 그리고 현실, 비현실의 경계를 입몽각몽의 과정에 있는 꿈을 모티브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과 두 작품 다 삽입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두 작품이 다 여자가 선창하고 남자가 뒤따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작품의 차이점으로는 <萬福寺樗蒲記>에서의 여귀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귀신의 속성을 가졌으나 <藤穆醉遊聚景園記>의 여귀는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점이 다르다. 또한 <萬福寺樗蒲記>의 승답시는 <藤穆醉遊聚景園記>에 비해 훨씬 정취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남자 주인공의 차이점은 萬福寺樗蒲記는 고아, 노총각으로 절간 동쪽 방에 독거하는 불우한 사람으로서 다음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일찍이 아버이를 여의고, 장가도 들지 못한 체, 만복사의 동쪽 방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早喪父母 未有妻室 獨居萬福寺之東房)<sup>33)</sup>

<藤穆醉遊聚景園記>는 시문에 능하여 세상의 인정을 받은 능력 있는 사람으

33) 김시습 著, 《金鰲新話》, 2009, 민음사

로서 다음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나이는 스물여섯에 인품이 훌륭하고 시를 잘 읊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

(年二十六, 美風調, 美吟詠, 爲衆所推許)<sup>34)</sup>

부부인연의 차이로는 <萬福寺樗蒲記>는 열광적으로 갈구하는 여자인가 하면 <藤穆醉遊聚景園記>는 여자가 낭군을 얻기에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다. 전자는 남자의 소원인데 비해, 후자는 여자의 소원이다. 또한 <萬福寺樗蒲記>에서는 가정생활이 없었으나 <藤穆醉遊聚景園記>에는 가정생활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도 다르다.

## 제2절 <翠翠傳>과 <李生窺牆傳> 比較

<李生窺牆傳>은 낭만적, 전기적, 비극적, 환상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작품의 구성을 살펴보면 서사 문학의 전통적 방식으로 사건의 시간적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세 차례의 만남과 시련 및 이별이 거듭되는 복합 구성의 양상을 보인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세 번의 시련은 부모님의 반대, 흥건적의 난리로 인한 최씨부인의 죽음, 삶과 죽음을 가르는 冥府<sup>35)</sup>의 법칙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의 시련은 두 사람의 지극한 사랑으로 해결되지만, 두 번째의 위기는 해결의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것이다. 그러나 김시습은 비극적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창작 의식으로써, 전래설화에서 볼 수 있는 冥婚, 즉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의 사랑, 결혼이라는 이야기 방식을 도입하여 환상적이고도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유불선 사상

34) 정용수 著, 《剪燈新話救解》, 2003, 푸른사상

35) 저승.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곳

의 혼합체인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정을 그린 작품으로 전반부는 이승의 현실적인 사건을, 후반부는 이승과 저승을 초월한 세계를 그린 작품으로 현실적으로 좌절된 사랑을 귀신과의 사랑으로 바꾸어 성취시켰지만 결말에서 작가는 이생의 재회가 허무하게 끝나도록 해 놓은 것은 불교적인 무상관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李生窺牆傳>과 <翠翠傳>은 모두 남녀가 자유의지로 사랑하고 혼인을 성취했다는 점, 혼인 후 전란으로 인해 이별하고 재회한다는 점, 그리고 남녀 주인공의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공통된 양상을 보인다.

두 작품의 인물을 살펴보면 모두 남녀주인공을 제외하고는 장식적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남녀 주인공들도 그 신분이 같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성격면에서는 <翠翠傳>에서 김정은 취취의 사랑을 이루기에 적극적인데 반해, <李生窺牆傳>에서의 이생은 최처녀와의 사랑을 이루는데 있어서 이끌려가는 소극적인 면을 보인다.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반드시 서쪽에 사는 김정한테 갈 거예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죽으면 죽었지 맹세코 다른 집에는 안 갈거예요.

(必西家金定 妾已許之矣. 若不相從 有死而已 誓不登他門也.)<sup>36)</sup>

여주인공을 살펴보면 취취는 결혼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이거나 끝내 훼손하는데 비해 최여인은 적극적인 성격으로 사랑을 이루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주인공들의 성격면에서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사건면에서 보면 양 작품은 이렇다 할 유사성은 안 보이고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翠翠傳>에 비해 <李生窺牆傳>이 훨씬 극적이고 그리움에 지쳐 죽은 김정부부가 죽어 한 곳에 묻히고 그들의 혼백이 아버지를 불러들이는데 비해 이생의 부인 최여인은 삼생의 인연을 마쳐 환신이 명계로 돌아간다. 당연히 그 결말도 꿈속에 환신으로나마 나타나 아버지에게

36) 정용수 著, 《剪燈新話句解》, 2003, 푸른사상

사정을 밝히는 <翠翠傳>에 비해 <李生窺牆傳>은 이생을 끝내 아내를 따라 저승길을 떠나 그 차이가 보인다.

<翠翠傳>은 그 전반이 이생규장전과 아주 흡사하고 또 마지막에 환신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물 설정 형식은 주인공의 경우 거의 같되 기타 인물에 있어서는 <翠翠傳>의 규모가 크고 다양하다. 또한, 소설의 배경 설정 형식은 자국의 역사적 병란을 무대로 설정하였다. <翠翠傳>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년이 못되어 장사성 형제가 고우에서 군사를 일으켜 회수 연안의 여러 고을들을 함락시켰다.

(未及一載 張士誠兄弟起兵高郵)<sup>37)</sup>

李生窺牆傳에서도 張士誠 起義에 대해서 비슷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고려 공민왕 10년(1361)인 신축년에 홍건적이 서울 개성을 점거하자 임금은 복주로 피난을 갔다.

(辛丑年 紅賊據京城 王移福州)<sup>38)</sup>

起義는 우리말 ‘반란’ 정도의 뜻이므로 장사성 기의는 ‘장사성의 난’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張士誠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원나라 말엽의 혼란한 틈에 반란을 일으킨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원장과 쌍벽을 이루었던 인물이다. 특히 고려 말 우리 역사와도 매우 관계가 많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張士誠(1321~1367)은 현재 염성시에 속해있는 대풍시 백구장 출신의 鹽商이었다. 이곳은 《수호전》의 作者 시내암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기도 했다.

37) 정용수 著, 《剪燈新話句解》, 2003, 푸른사상

38) 김시습 著, 《金鰲新話》, 2009, 민음사

염성은 그 이름처럼 소금과 관계가 깊은 곳이다. 동해를 옆에 둔 지역이어서 천일염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었다. 소금은 아주 옛날부터 내륙지방에서는 무척 귀한 것이라 주로 나라에서 그 생산과 판매를 전매제로 했었다. 나라가 혼란할 때는 관리들이 소금 생산업자들에게 온갖 방법으로 착취를 했고 또 암거래가 많아 그것으로 蓄財를 하는 사람도 많았다. 장사성은 소금을 실어나르는 배를 가지고 소금 밀매를 하여 돈을 많이 번 인물 이었다. 원나라 말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곳곳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장사성은 염장관리의 부당한 간섭에 대항해서 그의 세 아우를 중심으로 鹽丁들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장사성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참한 생활고와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울분을 참지 못한 인근의 염민과 농민들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일어나 그의 깃발아래 모여 들었다.

처음에는 주로 근처인 泰州와 高郵등을 점령하고 그곳을 근거지로 하여 국호를 大周라 하고 스스로 誠王이라 칭했다. 이때 고려에서는 원나라의 압력에 못 이겨 최영을 사령관으로 하는 정예군을 파견한다. 고려의 정예군과 장사성의 군대의 싸움에서 고려군이 대승함으로써 장사성의 군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역사적 사실을 소설에 접목시킴으로서 훨씬 긴장감을 고조 시키고 현실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李生窺牆傳>은 《剪燈新話》중 가장 유사한<翠翠傳>과도 소설 구성에 있어 현격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으나 일부분에서 유사점을 찾아 비교하려는 노력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렇다면 이 <李生窺牆傳>은 《金鰲新話》의 작품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작품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물의 성격도 가장 한국적이며 특히 주인공은 학문적 소양과 교양에 있어서도 뛰어난 선비와 양가 규수로서, 더욱이 여주인공은 숙덕재학과 정절에 있어서도 귀감적인 여인이며 전형적인 한국인의 모습이 그려졌다.

나이는 열여덟, 풍모가 맑고도 말쑥하였으며, 길가에서 시를 읽기도 하였다... 그녀는 자태가 아름답고, 자수를 잘하였다. 게다가 시문에도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두고 다음과 같이 칭찬하였다. “풍류재자 이도령, 요조숙녀 최낭자,



그 재주 그 모습, 듣기만 해도 주린 창자를 배불리지요”  
 (年十八, 風韻清邁, 天資英秀, 常詣國學, 讀詩路傍 . . . . 態度艷麗  
 工於刺繡 而長於詩賦 世稱, “風流李氏子 窈窕崔家娘 才色若可餐  
 可以療飢腸 ” )<sup>39)</sup>

따라서 이와 같이 한국인의 정취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의 역사적이며 시  
 대적 배경이 여실히 그려져 있어 완전한 독창적인 소설이 탄생한 것이다.

### 제3절 <鑑湖夜泛記>와 <醉遊浮碧亭記> 比較

<醉遊浮碧亭記>는 남녀간의 사랑을 제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萬福寺  
 榜蒲記>나 <李生窺牆傳>과 비슷하지만 정신적인 사랑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두 소설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醉遊浮碧亭記>에 대해서는 많  
 은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략 다섯 가지로 정리  
 해 본다.

먼저 작품에 나타난 사건을 수양대군이 단종을 빼앗은 역사적 사건에 비유  
 한 소설로 인정하며 둘째, 선녀와의 사랑과 죽어서 신선이 된다는 이야기는  
 현실성 도피로 보고, 이것이 작가가 추구하는 현실주의적 사상과 어긋나며,  
 결국 작가의 정신적 갈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셋째, 모순된 세계  
 를 바로 잡아서 세계와 화합하려는 ‘자아’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세계’의 대결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넷째, 道家의 문화의식이 나타나 있  
 는 작품이며 마지막으로 기자조선과 위만에 얽힌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우월  
 감과 역사의식에 바탕을 둔 중국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것이다.

醉遊浮碧亭記를 瞿佑의 鑑湖夜泛記와 비교해 볼 때 대체적으로 홍생과 성영  
 언이 모두 가을밤 천상의 여인을 만나, 그녀들의 회포를 듣고 함께 담론을  
 편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유사한 구조를 취한다. 그러나 홍생과 기씨녀의 만

39) 김시습 著, 《金鰲新話》, 2009, 민음사

남은 평양의 부벽정이라는 현실적 지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곳의 명승지로는 금수산, 봉황대, 능라도, 기린굴, 조천석, 추남허 등이 있는데 모두 고적이다. 영명사의 浮碧亭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영명사 자리는 바로 고구려 동명왕의 구계궁터이다. 이 절은 성 밖에서 동북쪽으로 이십 리 되는 곳이 있다. 긴 강을 내려다보고 평원을 멀리 바라보며 아득하기 그지없으니, 참으로 좋은 경지였다. 그림 그린 놀잇배와 장삿배들이 날 저물 무렵 대동문 밖에 있는 유기에 닿아 머물게 되면, 사람들은 으레 강물을 따라 올라와서 이곳을 마음대로 구경하며 실컷 즐기다가 돌아가곤 하였다.

(其勝地，則錦繡山，鳳凰臺，綾羅島，麒麟窟，朝天石，楸南墟，皆古跡，而永明寺浮碧亭，其一也。永明寺，卽東明王九梯宮也。在郭外東北廿里，俯瞰長江，遠矚平原，一望無際，眞勝境也。畫舸商舶，晚泊于大同門外之柳磯，留則必泝流而上，縱觀于此，極歡而旋。亭之南，有鍊石層梯，左曰青雲梯，右曰白雲梯，刻之于石，立華柱，以爲好事者玩。)40)

한 밤중에 작은 배를 저어 浮碧亭가에서 고구려에 대한 회고시를 읊으며 혼자서 춤을 추고 울었던 것으로 보아 고독하고 불행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견우성의 종사관이 될 정도의 재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현실세계에서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현실세계를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 초반에 묘사적으로만 나타난 홍생이 가진 내면적 갈등의 모습은 기씨녀와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표출된다. 기씨녀는 기자의 후손인데 왕위를 찬탈 당하자 절개를 지켜 죽고자 했다. 이에 신인이 된 기자가 그녀를 이끌어 하늘에 올라가 신선이 되어 상제의 향안을 받드는 시녀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현실세계를 잊지 못하고 고국을 그리워한다. 이러한 기씨녀의 형상은 홍

40) 정용수 著, 《剪燈新話救解》, 2003, 푸른사상

생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홍생은 고조선이나 고구려처럼 이상적 이념이 지배하던 현실세계를 꿈꾸면서 자신이 밭 딛고 있는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는 김시습이 작품의 서두에 평양의 명승지로 ‘금수산, 봉황대, 조천석, 기린굴, 추남허, 영명사, 부벽정 등을 들고 영명사가 고구려의 구제궁터에 있다’ 고 이야기하는 한편, 홍생이 ‘기자가 은나라의 옛터에 보리만 우거진 것을 보고 탄식을 하였듯이’ 탄식을 하면서 시를 지어 기자와 단군 시대의 영웅이 사라지고 동명왕과 같은 성제가 조찬을 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는 지금 누구에게 의지할까, 하는 것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고조선이 천명을 거스르지 않은 왕조였던 것처럼 고구려 역시 천제의 아들인 동명성제가 건국을 한 왕조이다. 서술자가 금수산, 봉황대, 조천석, 기린굴, 추남허 등을 나열한 것은 이들이 바로 고구려가 하늘의 인정을 받은 왕조임을 이야기 해주는 전설을 지니는 유적들이기 때문이다. 홍생이 이처럼 기자 조선만을 그리워하지 않고 고구려의 동명성제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가 꿈꾸는 것이 ‘고조선’ 이 아니라 고조선이나 고구려처럼 정통성을 지닌 왕조를 그리워함을 뜻하는 것이다.

반면, <鑑湖夜泛記> 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수십 걸음 들어가니 큰 궁전 뒤편에도 높은 누각 한 채가 보였다. ‘천장지천’ 이란 현판이 붙어있었다. 거기에는 ‘영광지각’ 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에는 雲母로 된 병풍이 둘러쳤고, 玉華의 자리를 깔아 놓았다. 사방에는 모두 水晶簾을 珊瑚 갈고리로 걸어 놓았는데, 밝기가 대낮과 같았다. 들보 사이에는 향 두 덩어리를 달아서 난초 향기와 사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行數十步, 見一大殿, 榜曰: ‘天章之殿’ 殿後有一高閣, 題曰: ‘靈光之閣’ 內設雲母屏, 鋪玉華簾, 四面皆水晶簾, 以珊瑚鉤挂之, 通明如白晝, 梁間懸香毬二枚, 蘭麝之氣)<sup>41)</sup>

41) 김시습 著, 《金鰲新話》, 2009, 민음사

성생과 직녀는 인간세계와 8만리나 떨어진 은하수라는 비현실적 천상공간에서 이루어진다. 天帝의 손녀요 靈星의 딸로 일찍이 정숙한 성품을 타고나서 번잡한 세상을 피해 사는 직녀의 이야기인 것이다.

<醉遊浮碧亭記>와 <鑑湖夜泛記>의 또 다른 점은 홍생의 경우, 먼저 부벽루에서 고구려의 흥망에 대해 맥수지탄을 노래한 시를 읊자 그것에 감응한 천녀가 현실세계로 내려오는데 비해, 성생은 인간세계에서의 오명을 씻고자 하는 직녀에 의해 은하수로 인도되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된다.

천녀와 헤어진 후의 남자주인공이 모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신선이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의 결말 구조 또한 유사하나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상이하다. 홍생이 죽음이라는 인간세계와의 결별과정을 통해 천상의 종사관이 되고 그 결과 기씨녀에 대한 홍생의 상사병이 치유될 것이 암시되는데, 이것은 지상에서는 그가 원하는 이상적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성생은 사라진 후 지상의 회계산에서 신선처럼 사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성생은 분명한 이유 없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리는데 이것은 직녀를 통해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진실이 부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현실에서 진리로 여겨지는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된 순간 그는 더 이상 현실에 머물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천상세계로 편입되지 않은 것은 아무런 정욕도 존재하지 않는 천상도 그가 꿈꾸는 이상세계는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醉遊浮碧亭記>와 <鑑湖夜泛記> 속에 나타난 인물을 살펴보면 거의 대등한 인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살펴 볼 수 있고, 주인공들의 신분이 남자 주인공은 유생이라는 점 여자 주인공은 신격화 된 모습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모습이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鑑湖夜泛記>에서 성령언은 강직하고 인격적 수양에 힘써 세속에서 벗어난 전형적 유생으로 근엄하고 전형적인 느낌의 소설 형태를 지니고 있고, <醉遊浮碧亭記>에서 홍생은 풍류를 아는 선비로 세속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운문의 구성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드럽다는 느낌이 난다. 여자 주인공 역시 직녀는 신성스런 신격을 하나도 흐트림이 없는 모습으로 나오나 기씨 여자는 인간에서 등선해서 그런지 인간적인 면이 많이 나타난다.

양 작품 사이에 지명이나 사건 전개 면에서 배경은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그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작가와 주인공이 모두 유생이라는 점에서 유교적 사상이 보이고 동양사상의 한 흐름인 선비사상이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 제4절 <令狐生冥夢錄>과 <南炎浮洲志> 比較

<南炎浮洲志><sup>42)</sup>는 전기적, 괴기적, 환상적, 비판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상적 특징은 불교에 대한 작가의 시각으로 볼 때 올바르지 못한 길과 사악한 도리로서 사도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지만, 최종의 목적은 정도로 나아가는 데 있다고 보며, 불교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유불 조화론을 내세우고 있다. 소설의 구조로는 몽유 구조인 현실과 꿈, 현실을 오가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南炎浮洲志>에서 作者는 작품 속 주인공인 박생과 염라왕의 문답을 통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사상을 표출하였다. 첫째, 作者는 염라왕의 입을 통해 유교를 정도로 보고, 불교를 사도로 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교의 필요성으로 유불 조화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세속적인 기본 불교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공박하고 있다.

“주공과 공자의 가르침은 정도를 써서 사도를 물리친 것이고, 구담의 법은 사도를 써서 사도를 물리친 것이지요. 정도로 사도를 물리쳤으므로 구담의 말은 荒誕하였소. 정직하므로 주공과 공자의 말씀은 군자가 따르기 쉽고, 황탄하므로 구담의 말은 소인이 믿기 쉬운 것이요. 그러나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모두 군자와 소인들로 하여금 결국 올바른 이치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소. 결코 세상 인민들을 현혹시키고 속여서 이단의 도리로 잘못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42) ‘남쪽에 있는 炎浮州 이야기’라는 뜻. ‘염부주’는 전생에 부모나 임금을 죽인 흉악한 죄인들을 다스리는 곳으로,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는 섬을 말한다.

(周孔之教，以正去邪，瞿曇之法，設邪去邪。以正去邪，故。其言正直，以邪去邪，故。其言荒誕。正直故君子易從，荒誕故小人易信，其極致，則皆使君子小人，終歸於正理，未嘗惑世誣民，以異道誤之也。)43)

두 번째는, 불교의 내세설에 대해서 염라왕은 유교적인 음양이론에 의하여 불교의 천당과 지옥을 부인하고 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 하늘은 性을 명하여 주고 땅은 생명으로 길러주며, 군주는 법으로써 다스리고 스승은 도로 가르치며 아버지는 은혜로 길러주는 거요. 이렇게 해서 오류가 차례가 있고 삼강이 문란하지 않게 되요. 삼강오륜을 잘 따르면 상서롭고 삼강오륜을 거슬리면 재앙이 닥치니, 상서와 재앙은 사람이 세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달려 있을 따름이요. 사람이 죽게 되면 정기가 흩어져, 魂은 하늘로 올라가고 魄은 땅 밑으로 내려가 근원으로 돌아가는 법이요. 어찌 다시 캄캄한 저승 속에 머무르는 일이 있겠소? 그리고 억울하게 죽었거나 원한을 품은 혼과 황사하거나 요절한 귀신은 그 정당한 죽음을 얻지 못해서 기운을 펼 길이 없어, 전쟁터와 황사의 구역에서 시끄럽게 울기도하고, 생명을 버리거나 원한 맺힌 집에서 처량하게 울기도 하는 일이 간혹 있소. 그들은 혹은 무당에게 의탁해서 사정을 호소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의지해서 원한을 말하기도 하오. 하지만 비록 정신이 그 당시에는 흩어지지 않았다 해도 결국은 아무 조짐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말 것이요. 어찌 그들이라 해서 명부에서 임시로 형체를 빌어서 지옥의 벌을 받는 일이 있겠소? 이 점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군자라면 마땅히 헤아려 알아두어야 할 일이요.”

(且人之生也，天命之以性，地養之以生，君治之以法，師教之以道，親育之以恩。由是，五典44)有序，三至於死，則精氣已散，升降還

43) 정용수 著, 《剪燈新話句解》, 2003, 푸른사상

44) 오전(五典): 유교의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할 5가지 실천 강목으로 오륜(五倫) 또는 오상(五常)

源，那有復留於幽冥之內哉？且冤懟之魂，橫夭之鬼，不得其死，莫宣其氣，愬愬於戰場黃沙之域，懟懟於負命啣冤之家者，間或有之，或托巫以致款，或依人以辨懟，雖精神未散於當時，畢竟當歸於無朕。豈有假形於冥地，以受狂獄乎。綱<sup>45)</sup>不紊，順之則祥<sup>46)</sup>，逆之則殃，祥與殃在人生受之耳。此格物君子，所當斟酌也。)47)

세 번째로, 염라왕은 귀신을 음양이기의 조화로 보고, 부질없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미신이라 하여 경계하였다.

“鬼란 것은 陰의 정기요, 神이란 것은 陽의 정기라오. 대개 귀와 신은 造化의 자취오, 二氣의 양능이오.<sup>48)</sup> 살아 있을 때는 인물이라 하고 죽고 나면 귀신이라 하지만, 그 이치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오.”

(“鬼者，陰之靈，神者，陽之靈，蓋造化之迹，而二氣之良能也。生則曰人物，死則曰鬼神，而其理則未嘗異也。”<sup>49)</sup>

네 번째로 정치관에 대해서는 왕도와 패도의 차이를 말하며 왕도를 고취하고, 고금의 여러 왕들의 치란의 자취를 들어 말하고 있다.

작품에 나타난 이상의 유교관, 불교관, 정치관 등으로 作者는 《剪燈新

---

이라고도 한다.

45) 三江: 유교의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할 3가지 기본 강령으로 한대(漢代)의 학자 동중서(董仲舒)에 의해 확정된 윤리

46) 祥: 상서(祥瑞)의 의미로 사용되며 복되고 길한 일이 있을 조짐을 뜻한다.

47) 정용수 著, 《剪燈新話句解》, 2003, 푸른사상

48) 이 부분은 朱熹의 《中庸章句集註》 제16장의 주석에 실린 張載의 설과 주희의 설에서 나왔다. “정이천은 말하길, 귀신은 천지의 공용이요 조화의 자취라고 하였다. 장황거는 말하길, 귀신이랑 二氣의 양능이다. 내 생각에, 이기를 가지고 말한다면, 귀는 음의 영이고, 신은 양의 영이다. 하나의 기를 가지고 말한다면, 이르러 와서 뺏어나가는 것은 신이고 되돌아서 가는 것은 귀이니, 실은 한가지일 따름이다.

49) 김시습 著, 《金鰲新話》, 2009, 민음사

話》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南炎浮洲志>가 현존하는 《金鰲新話》 다섯 작품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작품이 되는데 <生六臣文集>에서는 이 작품을 ‘小說之第一也’ 이라고 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南炎浮洲志>와 <令狐生冥夢錄> 두 작품은 꿈을 매개로 주인공들이 저승에 가게 되고, 그곳에 가서 평소에 품었던 의혹이나 불만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꿈속에서 있었던 일이 꿈을 깬 이후의 현실과 연계되는 등 서사의 기본 골격이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저승 체험의 구체적 양상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먼저, 저승 형상에서 <南炎浮洲志>의 경우 박생이 염부주에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염부주가 형상화되고 있는데, 나라 자체가 쇠와 불로 구조된 거대한 지옥세계로 그려지고 그 속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묘사되고 있다.

이에 비해 <令狐生冥夢錄>에서는 영호생이 간힐 뻔했던 여설옥을 비롯해, 판결을 받고 풀려난 후에 관란하게 된 세척, 오국지문 등 이승에서 지은 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지옥의 유형들이 명시되거나 구체적으로 묘사 되고 있다.

영호선은 또 한곳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두 개의 구리쇠 기둥이 서 있는데 남녀 두 사람을 그 위에 묶어 놓았다. 야차는 칼로 그들의 가슴을 갈라 창자와 위장이 흘러나오자 이것을 끓는 물에 씻었는데, 그 형벌을 세척형이라고 했다. 영호선은 그 까닭을 묻자 귀사는, “이 사람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의원이었는데, 이 여자 남편의 병을 치료해 준다고 다니며 결국 이 여자와 간통을 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병으로 죽었으니 비록 이 두 사람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 정상을 살펴 죄를 준다면 직접 죽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至一處, 見銅柱二, 縛男女二人於上, 有夜叉以刃剖其胸, 腸胃流出, 二沸 湯沃之, 名爲洗滌, 撰問其故, 曰: “此人在世爲醫, 因療此婦之夫, 遂與婦通, 已而其夫病卒, 雖非二人殺之, 原情定罪, 與殺同也. 故受此報.)<sup>50)</sup>

50) 김시습 著, 《金鰲新話》, 2009, 민음사



이처럼 두 작품 모두 지옥을 중심으로 저승이 형상화되고 있지만, <승狐生冥夢錄>의 지옥이 불교에 기반한 전통적인 지옥 관념과 흡사한 공간인 데 비해, <南炎浮洲志>의 지옥은 염부주라는 하나의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염왕과의 문답이나 진술서를 통해 쟁점이 된 내용들 또한 차이를 보인다.

<南炎浮洲志>의 경우는 박생이 평소 지니고 있던 귀와 신에 대한 해석, 천당과 지옥 그리고 윤회의 존재 등에 대한 문답뿐만 아니라 역대 정치와 관련하여 통치자의 덕목에 대한 문답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량 또한 전체 서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염라왕은 세간의 상식이 용인하는 염라왕이 아니다. 박생의 변론에 동조하며 인간을 심판하는 염라국을 오히려 부정하고, 백성을 그릇 인도하는 왕의 횡포를 비판하고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진 박생을 옹호하고 끝내는 그 박생이 마음에 들어 염라국왕의 자리까지 물려주는 데 이른다.

作者의 의도는 박생과 염라국왕의 대화를 통하여 오히려 염라왕이나 저승의 존재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패러독스를 이용함으로써 현실적 행위와 사상을 더 강하게 부인해 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매월당은 염라왕이라는 가상 인물을 통하여 작가가 처한 시대의 이념적 모순과 정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해 보려는 의도를 이 작품을 통해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승狐生冥夢錄>의 경우는 영호생이 저승에 잡혀 오게 된 바로 그 문제, 즉 저승의禍와福에 대한 응보와 처벌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어지고 자연스럽게 그 비중도 작다.

양 작품의 주인공들은 인간이든 신격이든 같은 틀로 짜여져 있다.

인간 주인공들의 성격은 강직한 유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신격 주인공들도 <승狐生冥夢錄>의 주인공보다 <南炎浮洲志>의 주인공이 중후한 성품이기는 하나 관념적인 의의에 있어서는 같다고 하겠다. 이를 보아 인물 면에서는 양 작품 모두 비슷한 성격과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배경을 살펴보면 그 공간이 현세와 지옥을 오간다는 점에서 같고 사상적 배

경도 주인공이 유생이라는 점과 지옥을 가는 부분에서 불교적 색채가 가미된 것을 볼 때 흡사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南炎浮洲志>는 인물 설정의 기본 형식은 《剪燈新話》의 <令狐生冥夢錄>을 따르되 인물의 성격에 있어 고도의 학문적 자질과 소양을 갖춘 한국 선비의 전형으로 부각되어 있으며, 또 신라의 고도 경주를 배경으로 또 명문가 박씨 성을 설정하되 역사적 진실의 신빙성을 주고 있으며 지옥도 남염부주로 구체적이다. 또한 사건도 우리나라에 흔한 불교와 연관된 사건으로서의 구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金鰲新話》의 <南炎浮洲志>는 《剪燈新話》의 <令狐生冥夢錄>에서 인물의 설정 형식이나 사건 구성의 형식적 요소를 그 영향으로 수용하여 독창적인 내용의 전기소설의 세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 제5절 <水宮慶會錄>과 <龍宮赴宴錄>과 比較

앞은 듯 다른 공간에서 펼쳐지는 두 이야기는 상량문을 지어주고 잔치를 구경한 뒤 보답을 받고 돌아온다는 서사전개의 틀은 비슷하지만 <龍宮赴宴錄>의 경우에는 잔치의 장면이 매우 자세하게 펼쳐진다. 용왕이 딸을 위하여 지은 佳會閣에 한생이 상량문을 짓자 용왕은 潤筆宴을 열어 여러 신하들의 노래와 춤을 구경 시켜준다.

검은 거북과 붉은 잉어는 기뻐 뛰면서 합창을 하고, 나무귀신과 산도깨비도 차례대로 와서 축하한다...미인 십여 명이 푸른 소매를 흔들고 머리에는 구슬 꽃을 엮고서, 무리를 지어 앞으로 나왔다 뒤로 물러갔다 하며 춤을 추면서, 벽담지곡한 곡조를 불렀다... 춤이 끝나자 다시 총각 십 여명이 왼손에는 피리를 잡고 오른손에는 새깃을 들고 등장한다. 그들은 서로 빙빙 돌고 서로 돌아보면서, 회풍지곡한 곡조를 불렀다...이에 한 사람이 광개사라 자칭하면서 나섰다. 그는 발을 들고 옆으로 걸어서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이 놀음이 끝나자 또 한 사람이 현선생이라 자칭

하면서 나섰다. 그는 꼬리를 끌고 목을 빼고는, 기염을 토하고 눈을 부릅뜬 채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현선생의 놀이가 끝나자, 이어서 나무·돌의 도깨비와 산림의 정괴가 일어나서 각기 재능을 자랑하였다. ...이번에는 강하의 군장들이 꿇어 앉아서 시를 올렸다.

(玄龜赤鯉，踊躍而助唱，木怪山魃，次第而來賀，...<중략>有蛾眉十餘輩，搖翠袖，戴瓊花，相進相退，舞而歌碧潭之曲曰...<중략>舞竟，復有總角十餘輩，左執籥，右執翫，相旋相顧，而歌回風之曲曰...<중략>有一人，自稱郭介士，舉足橫行，進而告曰...<중략>又有一人，自稱玄先生，曳尾延頸，吐氣凝眸，進而告曰...<중략>於是，木石魍魎，山林精怪，起而各呈所能...<중략>於是，江河君長，跪而陳詩.)<sup>51)</sup>

등등 세세하게 잔치의 노래와 춤들을 기록하고 있다. <水宮慶會錄>에서는 글을 짓는 사람은 余善文으로 국한되지만 <龍宮赴宴錄>에서는 용왕이 직접 노래를 부를 뿐 아니라 초대된 다른 신들과 광개사나 현선생과 같이 의인화된 수중 생물들까지 글을 지어 화답하는 것이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사실 한생은 용궁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이익과 명예에서 마음을 거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이미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존재였기 때문에 용궁을 경험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에 <龍宮赴宴錄>에서는 다른 세상의 존재들과 마음을 주고받는 장으로서의 잔치가 그토록 공들여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잔치가 끝나고 돌아온 뒤의 이야기가 또 닮은 듯 다르게 되어 있다.

<龍宮赴宴錄>에서는 잔치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용궁의 정란을 두루 구경하고 온데 비하여 <水宮慶會錄>은 즉시 귀가한 것이 다르다. 또한, 余善文은 전별선물을 상인들에게 팔아 부자가 되고 한생은 꼭꼭 감추어 간직한다. 이들의 경험은 매우 특수한 것이며 현실적 체험이라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사유 체계 안에서 경험한 일이라 할 것인데 그렇기에 이들이 받아들인 전별선물은 그들의 상상적 체험에 대한 현실적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선문이 그것을 시장에서 팔았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현실적 가

51) 김시습 著, 《金鰲新話》, 2009, 민음사

치체계로 치환하려 했음을 의미하고, 한생이 보배들을 감추어 둔 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세상과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이 모두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이익과 명예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지만 余善文이 세상과 소통하려다 결국 세상을 부정한 존재라면 한생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로 보이는 것은 이러한 차이 때문이다.

<龍宮赴宴錄>과 <水宮慶會錄>의 배경은 용궁을 오고 간다는 점에서 그 공간이 똑같고 두 선비가 유생이라는 신분으로 유교적 소양인 君臣之義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교적 가치관이 보인다. 또 여기서 용궁과 용왕의 등장은 김시습의 승려로서의 면모를 살펴볼 때 불교적인 색채도 가미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 제 4 장 《剪燈新話》와 《金鰲新話》의 思想比較

동양의 종교사상은 여러 가지 사상을 들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유교, 불교, 도교를 대표로 손꼽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사상은 동양의 삼대사상으로서, 동양의 모든 문화·사회·풍속·정치 기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문학 역시 이들 사상이 침투하여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동양사상의 주류인 삼대사상이 동양사상을 바탕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동양 문학 자체에 담겨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sup>52)</sup> 동양의 고전문학에 있어서는 동양사상이 그 주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본 고에서는 新話에 나타난 이 삼대사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제1절 佛敎的 思想

불교의 근본교리는 佛陀의 사상 중에서 起說, 그리고 一切衆生을 교화함에 있어서 일종의 교안으로 項目化한 四聖體說이다.<sup>53)</sup> 《剪燈新話》에는 불교 사상 중에서도 因果應報의 사상이 갖든 작품이 다수 있다. 본 고에서는 <승狐生冥夢錄>에서의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무릇 어떠한 일이든 간에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또 他의 因이 되고 이 因이 또 다시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주의 森羅萬象의 一切萬法이 각각 그 存位의 질서를 잃지 않고 생성 발전하는 데에는 인과의 도리가 있어 일정한 기간을 거쳐 諸法으로 하여금 질서정연케 한다.<sup>54)</sup> 본문에 나타난 불교적 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 朴晟義, 《韓國文學背景研究(上)》, 이우출판사, 1980 p107 참조

53) 金東華, 《佛敎學概說》, 1984, 서울 寶蓮閣, p90~125 참조

54) 金東華, 《唯識哲學》, 1973, 서울 寶蓮閣, p196 참조

영호선은 또 한 곳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두 개의 구리쇠 기둥이 서 있는데 남녀 두 사람을 그 위에 묶어 놓았다. 야차는 칼로 그들의 가슴을 갈라 창자와 위장이 흘러나오자 이것을 끓는 물에 씻었는데, 그 형벌을 세척형이라고 했다. 영호선은 그 까닭을 묻자 귀사는, “이 사람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의원이었는데, 이 여자 남편의 병을 치료해 준다고 다니며 결국 이 여자와 간통을 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병으로 죽었으니 비록 이 두사람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 정상을 살피 죄를 준다면 직접 죽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至一處，見銅柱二，縛男女二人於上，有夜叉以刃剖其胸，腸胃流出，二沸湯沃之，名爲洗滌，撰問其故，曰：“此人在世爲醫，因療此婦之夫，遂與婦通，已而其夫病卒，雖非二人殺之，原情定罪，與殺同也。故受此報。)”<sup>55)</sup>

다음은 《金鰲新話》의 佛敎思想이 나타난 부분이다. 먼저 <萬福寺樗蒲記>에 서는 “인생이 서로 만나는 것을 인연(人生相合定有緣)”<sup>56)</sup>이라 하며, 女鬼가 왜구의 침입으로 인하여 부부의 인연도 맺어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자기 자신의 소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의 한 평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마련되어 있으며 선악의 응보는 피할 수 없으므로, 타고난 생명에 인연이 있을 것이오나 일찍이 배필을 정해 주시어 즐거움을 얻게 해주심을 간절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

(人匡前定 業不可避 財命有緣 早得歡娛無仕懸之至)<sup>57)</sup>

선악의 응보는 피할 수 없고, 생명에 인연이 있을 것이라 하여 因果應報

55) 김시습 著, 《金鰲新話》, 2009, 민음사

56) 김시습 著, 《金鰲新話》, 2009, 민음사

57) 김시습 著, 《金鰲新話》, 2009, 민음사

思想이 잘 표현되어 있다.

<南炎浮洲志>에서는 주인공 박생과 염라왕과의 대화 중에 염라국이 된 까닭을 묻는 말에 다음과 같이 대답 하는 것을 통해, 불교의 因果應報 思想을 엿 볼 수 있다.

염라왕은 인간세상에 있을 때 나라에 충성을 바쳐 도둑떼를 토벌함에 사후에도 그 충성이 남아 있어 이 흉악한 곳에서 임금이 되었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모두 흉악범이니 염라왕에 의해 그릇된 마음을 고치려 하고 있다.

(我在世，盡忠於王，發憤討賊，乃誓曰：死當爲厲鬼<sup>58</sup>)，以殺賊 餘願未殄而忠誠不滅，故托此惡鄉爲君長。今居此地而仰我者，皆前世弑逆<sup>59</sup>姦兇之徒，托生於此，而爲我所制，將格其非心者也<sup>60</sup>)

## 제2절 儒敎의 思想

유교는 天, 地, 人의 三才가 그 思想構造를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中心概念은 인간에 있다. 그리하여 유교는 고대로부터 중세, 근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人道的 精神과 倫理道德을 중시하여 왔다.<sup>61)</sup>

이러한 유교의 출발은 孔子부터 인데 그 교학의 특징과 목적은 한마디로 <仁>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仁은 어디까지나 인간본위의 제일로 보았다. 이처럼 儒敎는 人間의 道를 밝히는 學이요, 天·地·人의 理를 밝힌 敎이다. 學의 범위가 人間의 倫理·道德·敎育·政治등의 모든 분야에 미치기 때문에 道의 學이고, 그 理가 哲學과 宗教와 性命과 우주의 근원에 통달되기

---

58) 여귀(厲鬼): 돌림병으로 죽은 귀신이나 제사를 받지 못하는 귀신을 말한다.  
59) 시역(弑逆): 시해라고도 하며 왕을 죽이는 일을 말한다. 예)공민왕시역사건  
60) 정용수 著, 《剪燈新話句解》, 2003, 푸른사상  
61) 柳承國, 《韓國의 儒學思想》, 1983, 서울 삼성출판사, p11

때문에 儒敎로까지 일컬어져 文學思想을 지배한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sup>62)</sup>

먼저 《金鰲新話》에 나타난 儒敎的 思想을 살펴 보겠다. <李生窺牆傳>의 이생과 최씨녀는 더없는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되지만 好事多魔라고 뜻하지 않던 홍무제의 난리가 송도에 까지 波及되며, 이생은 가까스로 몸을 빼서 피신을 하였지만 崔娘은 도적에게 잡히고 만다. 崔娘의 아름다움을 본 도적은 崔娘을 겁탈하려 하자 그는 크게 怒하여 욱을 하였다.

이 호랑이 창귀같은 놈아! 나를 죽여 씹어 먹어라 내 차라리 이리의 밥이 될지언정 어찌 개 돼지의 배필이 되어 내 정조를 더럽히겠느냐!

(殺啗我，寧死葬於豺狼之腹中，安能作狗彘之匹乎)<sup>63)</sup>

결국 그녀는 도적에게 잔인하게 살해되면서까지 정조를 지킨다. 이는 崔娘이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의 절의를 보인 것이다. 즉 그녀는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게, 절의를 지키며 떳떳하게 죽어간 것이다. 이것은 作者가 世祖를 섬기지 않고 끝내 端宗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으로서, 《金鰲新話》에 나타나는 여성을 통한 정절이나 도덕성은 충성에 인생의 가치를 둔 朝鮮朝忠臣들의 精神象徵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剪燈新話》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애경의 자색을 보고 제 것으로 삼으려 했다. 피할 수 없다고 각오를 한 애경은 달콤한 말로 그를 속여 놓고, 목욕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 비단수건을 목을 매어 죽였다.

(見愛卿之姿色，欲逼納之，愛卿以甘言給之，沐浴入閣，以羅巾自縊而死.)<sup>64)</sup>

62) 金圓卿, 《韓國文學의 思想의 研究》, 1981, 서울 태학사, p161~162

63) 김시습 著, 《金鰲新話》, 2009, 민음사

64) 정용수 著, 《剪燈新話句解》, 2003, 푸른사상



이렇듯 中國은 社會的 통념자체가 儒敎思想에 의해 지배되었고, 男性 中心的 社會였기 때문에 男尊女卑思想이 심하였다. 그런데 이같은 男尊女卑思想은 女子에게 극도로 구속을 주었고, 여자는 한 남자를 섬기는 것만이 美德이라 하여 貞節을 강조하였고 烈婦를 찬양하여 文學 속에도 이렇게 반영되었다.

### 제3절 道敎的 思想

中國思想의 二大根幹으로 유교와 도교를 말한다. 文學에는 특히 道敎의 영향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道敎는 宗教로서 도교와 함께 老莊의 道家的 思想을 함께 말함이다. 이 道家의 사상은 漢代에는 黃老學이라 일컬었고 魏晉 이후에는 老莊學이라 불리워졌다.

道敎는 中國에서 成立한 唯一한 宗教로서 道家思想은 中國百姓의 思想을 代表하였다. 道敎 중에서도 대표적인 神仙觀이 나타난 작품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곧 시녀를 시켜 술을 권하는데 차려 놓은 음식이 인간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시험 삼아 씹어 보아도 굳고 단단하여 먹을 수 없으며 술도 마실 수 없었다. 여인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속세의 선비가 어찌 仙界의 단술이나 용고기포를 먹어 보았겠소!”

(卽命侍兒，進酒一行，骹饌不似人間，試啖堅硬莫吃，酒又苦不能啜。娥莞爾曰：“俗士，那知白玉體紅虬脯乎。”)<sup>65)</sup>

위의 문장은 <醉遊浮碧亭記>에서, 홍생이 시종일관 仙界의 풍류를 주작하는 내용에서 神仙 思想이 나타난 부분이다. 시녀가 대접한 단술이나 용고기포갈

65) 정용수 著, 《剪燈新話敎解》, 2003, 푸른사상

은 것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神仙世界에서나 있는 음식이다.  
다음은 <龍宮赴宴錄>의 한부분이다.

고려 때 한생이 있었는데 젊어서부터 글을 잘 지어 조정에 이름이 잘 알려져서 문사로 평판이 있었다. 어느 날 한생이 거처하는 방에서 해가 저물 때까지 편히 쉬고 있었더니 문득 청삼을 입고 복두를 쓴 관원 두 사람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와서 뜰 밑에 엎드렸다. “박연못의 용왕께서 모셔오란 분부입니다”

(前朝有韓生者，少而能文，著於朝廷，以文士稱之。嘗於所居室，日晚宴坐，忽有青衫幘頭郎官二人，從空而下，俯伏於庭曰：“瓢淵神龍奉邀。”)<sup>66)</sup>

하늘에 사람이 내려오는 것 등은 神仙界에서나 가능한 것이므로 여기에서도 神仙思想을 엿 볼 수 있다.

---

66) 김시습 著, 《金鰲新話》, 2009, 민음사

## 제 5 장 結論

지금까지 《金鰲新話》의 작품세계를 당대의 시대상황 및 作者의 전기적 사실과 연결 지어 검토함으로써, 그 속에 투영되어 있는 作者의 내면의식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金鰲新話》는 전기소설의 장르 관습에 따라 꿈이나 異界와 같은 비현실계를 설정하여 남녀의 애정문제 등을 낭만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지만, 그 심층에는 15세기 조선의 특수한 시대 상황과 불안정한 혼돈의 시대를 번민하며 살다 간 作者 김시습의 내면의식이 깊숙이 투영되어 있다. 作者는 전기소설의 장르 관습을 빌어 자신의 내면세계를 우회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金鰲新話》의 작품세계는 作者의 삶과 폭넓은 연관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자 한문소설인 《金鰲新話》가 세상에 나오자 유학자 김인후와 송시열을 비롯한 많은 선비들은 열광하였고, 퇴계 이황은 괴이함을 비판했으나 이 또한 열독의 증거이다. 이는 불과 한 세기 전 중국에서 《剪燈新話》가 들어왔을 때 일으킨 붐과 같은 것이었다.

《剪燈新話》는 주로 자신이 살았던 江蘇省, 浙江省의 명승지가 대부분으로, 작자에게 익숙한 지역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에 친근감이 더해졌으며, 용궁, 저승, 이상향 등의 내용으로 혼란하고 암울한 현실을 초월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소재의 시간적 배경은 대부분 원말명초로 설정되어 있다. 瞿佑는 동정심에 가득 찬 필치로 金定과 劉翠翠, 趙生과 羅愛愛 부부의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을 그려냄으로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들이 일본과 베트남으로 전파되면서 그 영향력은 한층 증폭되었으니 가히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흥성기를 가져온 장본인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집으로 평가되고 있는 《金鰲新話》와 원말명초의 전기소설집 《剪燈新話》의 관계는 긴밀하다. 편제가 유사할 뿐 아니라, 김시습 스스로 《剪燈新話를 읽고》라는 독서후기를 남기고 있으니 《金鰲新話》에 미친 《剪燈新話》의 영향을 온전히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金鰲新話》가 《剪燈新話》의 단순한 모방이라는 비판과 주체적 수용을 통한 換骨奪胎의 걸작

이며 수작이라는 칭찬 사이에서 그 관계는 여전히 모호하기만 하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金鰲新話》와 《剪燈新話》 중 인물의 설정과 성격에 있어 거의 흡사하며 사건의 구성도 그 기본은 같은 틀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건의 구성이 전개되는 과정이 대체적으로 《金鰲新話》가 극적 전개 등 훨씬 우수하여 《剪燈新話》를 능가하고 있으며, 또 배경 또한 사건의 구성과 전개를 따라 더 우수하다 볼 수 있는데 특히 사건의 사상이 투영된 사상성은 《剪燈新話》를 훨씬 앞지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인물의 설정과 성격, 그리고 사건의 기본적 구성 등이 유사하므로 여태껏 《金鰲新話》는 《剪燈新話》의 모작이라는 평을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앞의 비교에서 보면 소설의 구성 면에서 분석된 바로는 《金鰲新話》의 구성이 《剪燈新話》보다 우수하다. 이 우수하다는 사실은 무턱 없이 모작이라는 평가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주고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金鰲新話》는 모작이 아니라 모방의 경지에서 한 걸음 발전된 형태라 함이 옳을 것이며, 또 중국 전기체 소설의 영향 하에 다분히 한국화한 한국적 전기체 소설로서 그 기틀을 잡은 소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단행본류

- 구우, 이경선 譯 《剪燈新話》, 을유문화사, 1971  
구우, 정용수 譯 《剪燈新話句解》, 푸른사상사, 2003  
구우, 최용철 譯 《剪燈新話上,下》, 소명출판사, 2005  
구우, 《剪燈新話》, 지만지(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8  
김시습, 이재호 譯, 《金鰲新話》, 을유문화사, 1972  
김시습, 《매월당 김시습 金鰲新話》, 홍익출판사, 2000  
김시습 著, 《金鰲新話》, 민음사, 2009  
金圓卿, <韓國文學의 思想的研究>, 서울대학사, 1981  
류수 譯, 《김시습작품선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2  
심경호,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0  
이대형, 《금오신화 연구》, 보고서, 2003  
이성훈, 《이야기중국사》, 청솔출판사, 2001  
조동일, 《동아시아 문학사 비교론》, 서울대출판부, 1989

## 논문류

- 김수성,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4  
김춘해, <전등신화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노영미, <金鰲新話에 나타난 작가의식 : 萬福寺樗蒲記 . 李生窺牆傳 . 醉遊浮碧亭記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박성의, <한국소설에 끼친 중국소설의 영향>, 고대50주년기념논문집, 1955  
석진란, <"金鰲新話" 研究 : 作品에 나타난 思想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1990

이용호, <금오신화의 근원적 사상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이학주,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예술적 특성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1994